

2024 춘천영화제

11th ChunCheon Film Festival

11th ChunCheon Film Festival

2024.6.20^{Thu} - 6.23^{Sun}



CCFF

춘천영화제 ChunCheon Film Festival



© 2024 ChunCheon Film Festival



Contents

목차



올해 포스터는 작년에 이은 연작 시리즈로, 기차를 타고 춘천에 도착한 사람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보는 모습을 형상화해 '영화의 불'이라는 영화제 슬로건의 의미를 담아냈다. 푸르른 춘천 고유의 색깔으로 사람 형상을 채운 것은 춘천영화제가 지향하는 '로컬리티'를 담아냈다. designed by 원세록

인사말·축사	02
상영관·티켓안내	06
상영시간표	08
프로그램·야외 이벤트	10
시상·심사위원	12
개막작	14
한국단편경쟁	16
인디시네마	25
다큐포커스	34
애니초이스	36
시네마틱 춘천	40
클로즈업	46
리플레이	50
작품 색인	56
조직·스태프	57
함께 해주신 분들	58
도움 주신 분들	59



박기복
춘천영화제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춘천영화제 이사장 박기복입니다.

영화관을 찾는 관객이 점차 줄고, 관객의 시선은 점차 OTT 콘텐츠로 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한 번째 춘천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이런 ‘용기 아닌 용기’는 갖게 된 것은 2023년에 보여 주신 춘천 시민들과 관람객들의 성원에 기인합니다. 2024년에도 작년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과 작품들을 준비하고자 많은 노력했으며, 이제 가을이 아닌 늦은 봄이자 여름의 시작인 6월에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도시에서 문화 다양성에 근거로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현실에 영화제가 너무 많다고 하는 여론을 듣기도 합니다. 춘천영화제도 그런 경제적 관점에서 따가운 시선을 주시는 분들도 만나 봤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난관을 풀어나가는 방법 중 하나로 문화적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를 통해 그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공황 시절의 미국에서 펼친 문화예술 분야의 뉴딜정책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뺑을 구하는 방법과 마음을 채우는 방법을 겸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춘천은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많은 문화 다양성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춘천영화제도 당당히 지역 영화의 중심지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민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하는 춘천영화제, 시민과 눈높이를 같이하는 영화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작년의 뜨거운 호응이 그 기틀을 만들기에 충분했고 올해도 그 여파가 이어진다면 영상문화 축제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부합하는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올해 춘천영화제는 다양한 시선의 젊은 신인 독립영화인의 등용문 역할과 다양한 독립 예술영화 상영,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까지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고 이성규 감독상 수상까지 꼼꼼하게 마련하였으니 부디 영화관과 공연장을 찾아 주셔서 그 자리를 빛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범
춘천영화제
조직위원장

수년 전부터 영화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궁리하다가 찾아가는 이동극장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포터블 스크린과 노트북, 빔 프로젝터, 스피커, 차광막을 싣고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대화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어르신들의 반응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주인공의 불행에 함께 탄식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재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환호했습니다. 부당한 차별과 폭력에 분노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에게 갈채를 보냈습니다. 영화를 감상하는 동안 삶의 지혜를 배우고, 배려의 의미를 이해하고, 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터득하는 소중한 체험을 함께했습니다.

영화가 동시대의 징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건 그 영화가 세상을 다루는 방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영화를 사랑하는 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다. 그리고 또 다른 영화를 사랑하는 건 세상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중략) 언젠가 세상은 영화가 될 것이다. 들뢰즈의 말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어느 평론가의 말입니다.

조금 더 나갈까요. 이미 세상은 영화가 되었습니다. 춘천영화제가 영화라는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다양한 길을 선보입니다. 춘천영화제와 함께하시면 다양한 타인들의 삶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명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됩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다시 불이 켜질 때 시민들과 함께 사색의 여정을 떠나고 싶습니다.

시민(관객)은 춘천영화제의 존재 이유입니다.



육동한
춘천시장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장 육동한입니다.

제11회 춘천영화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故 이성규 감독님의 뜻에서 시작한 춘천영화제가 이제는 강원 지역에서 가장 큰 영화제로 성장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10주년을 맞이하며 ‘초심’으로 돌아갔고, 올해는 그 성과를 토대로 더욱 도약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올해 춘천영화제의 키워드는 ‘로컬리티’입니다.

춘천의 시민 단체와 함께 진행해 온 ‘차근차근 상영전’은 올해도 계속되며,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와 함께 ‘다행히야’ 공모전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시네마틱 춘천’을 통해 지역의 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춘천영화제가 단순한 축제를 넘어 지역의 영상 문화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은 지금 영상산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과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춘천에서 만들어질 다양한 콘텐츠들의 ‘문화의 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영화제라는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그 힘이 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여름, 춘천이라는 도시의 낭만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기원하며, 영화제에 오신 여러분을 춘천 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장 김진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가장 큰 영화 축제인 춘천영화제의 개막을 축하드리며,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춘천을 찾아주신 수많은 관객 분들과 영화인 분들께도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 10주년을 맞이해 초심으로 돌아간 본 영화제는 극장과 야외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관객들과 만나며, 시민 축제로서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춘천영화제는 ‘문화도시 춘천’의 축제 문화 속에서 ‘영상 문화’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서 여름으로 시기를 옮긴 춘천영화제는, 도시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관객들과 만날 것입니다. 영화제가 내세우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축제 본연의 역할인 힐링과 휴식의 기능이 잘 어우러진 영화제. 춘천영화제는 이러한 이상적인 모습을 현실에 하나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영화제를 통해 많은 청년 영화인들이 발굴되어 기회를 얻고, 영화제도 더욱 성장하여 지역과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우리 춘천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4 춘천영화제의 개막을 축하드리며, 영화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기복 이사장님, 이대범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의 모든 스태프들과 영화제를 도와 주신 여러 기관·단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여름의 춘천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상영관
메가박스 남춘천
 강원 춘천시 춘천로
 17번길 17(온의동)
티켓 부스
 6월 21일(금) ~ 23일(일)
 10:00 ~ 마지막 상영 시작 전까지

주행시장·야외상영장
공지천청소년푸른쉼터
 강원 춘천시 수변공원길
 18(삼천동)

종합안내소
 6월 21일(금) ~ 23일(일)
 13:00 ~ 야외상영 종료 시



상영관 운영 원칙

1. 정시 상영

- 춘천영화제는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하며 상영 시작 후 15분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 상영 시작 후 좌석 이동 및 재입장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엔딩 크레딧이 모두 올라간 후에 조명이 켜집니다. 퇴장은 안전을 위해 가급적 조명이 켜진 후에 부탁드립니다.

2. 상영중 촬영 금지

- 영화 상영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불가합니다. (트레일러·엔딩크레딧 포함)

3. 관람등급 준수

- 춘천영화제는 영화 관람등급을 준수합니다.
- 만12세, 15세 이상 관람가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관람이 가능합니다.
- 청소년 관람불가의 경우 만 19세 미만 청소년(고등학교 재학생 포함)은 보호자 동반 여부에 관계 없이 입장이 불가합니다.

가격

일반상영 6,000원

- 7세 이하 어린이·만 65세 이상·군인·경찰·소방관·국가유공자·장애인은 현장 예매 시 무료발권 가능(본인에 한하며 증빙서·신분증 제시 필수)
- GV 등 토크 프로그램은 상영종료 후 잔여 좌석에 한해 무료 입장 가능

무료상영

- 시네마틱 춘천은 온라인 예매 혹은 티켓 부스 현장 발권 후 입장
- 야외상영은 선착순 무료 입장

* 춘천영화제 상영작 티켓 구매 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현장 예매

티켓 부스

운영 일시 6월 21일(금) ~ 23일(일) 10:00 ~ 마지막 상영 시작 전까지
운영 장소 메가박스 남춘천 2층 로비
결제 수단 신용·체크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티켓교환권

- 티켓교환권은 티켓 부스에서 실물 티켓으로 교환해야만 상영관 입장이 가능하며, 티켓교환권으로 발권된 티켓은 교환 및 취소 불가합니다.
- 온라인 예매 매진작은 일부 현장석을 상영 당일 티켓부스에서 선착순 판매합니다. 상영 시작 후에는 예매가 불가합니다.
- 실시간 계좌이체 301-0333-3079-31 농협 (사단법인 춘천영화제)

온라인 예매

네이버 예약 (<https://litt.ly/ccff>)



- 당일 상영작은 온라인 예매 불가합니다. (현장 예매만 가능)
- 한 상영작 기준 ID당 최대 4매까지 예매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예매작은 실물 티켓 발권 없이 모바일 티켓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 MY플레이스 > 예약·주문)

취소 및 환불

취소 가능 시간 영화 상영 당일 취소 불가
취소 수수료 영화 상영 전일까지 취소 시 수수료 없음

6.21 금

메가박스 1관	201 GV 11:00 - 12:30 (90') 한국단편경쟁 1 ⓂⓂ p.17	204 GV 13:30 - 15:02 (92') 한국단편경쟁 2 ⓂⓂ p.18	207 GV 16:30 - 18:11 (101') 한국단편경쟁 3 ⓂⓂ p.20	210 GV 19:30 - 21:00 (90') 한국단편경쟁 4 ⓂⓂ p.22
메가박스 2관	202 11:00 - 12:07 (67') 애니 초이스 단편 ⓂⓂ p.37	● 205 GV 13:00 - 14:12 (72') 시네마틱 추천 단편 1 ⓂⓂ p.41	● 208 GV 15:30 - 17:16 (106') 빛과몸 ⓂⓂ p.15,41	211 GV 18:30 - 20:11 (101') 해야할일 ⓂⓂ p.30
메가박스 3관	203 11:00 - 12:21 (81') 사랑은 낙엽을 타고 Ⓜ p.51	206 13:00 - 14:42 (102') 로봇 드림 ⓂⓂ p.36	209 GV 15:30 - 17:48 (138') 그여름날의 거짓말 Ⓜ p.26	212 GV 19:00 - 20:32 (92') 인디시네마 단편 ⓂⓂ p.31

한국단편경쟁 1
관 값 | 이경민
함진아비 | 이상민
명희 | 양기현

한국단편경쟁 3
샬리 | 이정주
안녕의 세계 | 정연지
다-데이, 프라이데이 | 이이다
셋둘하나 | 장혜진

시네마틱 추천 단편1
소년유랑 | 이루리
거미 | 김도균
되돌리기 | 한원영
셋 둘 하나, 감치 | 정유리

인디 시네마 단편
헨젤: 두 개의 교복치마 | 임지선
다리 말 도영 | 박지현
8월의 크리스마스 | 이가홍

한국단편경쟁 2
나무의 집 | 김해미
마이디어 | 김소희, 전도희
유아용 육조 | 최범석
아무 잘못 없는 | 박찬우

한국단편경쟁 4
도축 | 윤도영
사우트 | 김정연
육 년과 여섯 번 | 정보라
토끼 탈을 쓴 여자 | 강상우

시네마틱 추천 단편2
이부자리 | 이유진
대답 | 신지훈
명태 | 유이수

애니 초이스 단편
유령이 떠난 자리 | 여은아
항해의 끝 | 최민호
일출선야 | 황시원
스위밍 | 서세롬
안 할 이유 없는 임신 | 노경무

춘천씨네파크 야외상영 with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공자천 청소년 푸른심터	● 6.21 금 19:00 - 20:25 (85') 월레스와그로밋 더클래식컬렉션 ⓂⓂ p.54	● 6.22 토 19:00 - 20:56 (116') 웡카 ⓂⓂ p.55	● 6.23 일 19:00 - 20:13 (73') 브레드이발소: 셀럽인베이커리타운 Ⓜ p.55
--------------------	---	--	---

6.22 토

메가박스 1관	301 GV 11:00 - 12:30 (90') 한국단편경쟁 4 ⓂⓂ p.22	304 GV 13:30 - 15:00 (90') 한국단편경쟁 1 ⓂⓂ p.17	307 GV 16:30 - 18:11 (101') 한국단편경쟁 3 ⓂⓂ p.20	310 GV 19:30 - 21:02 (92') 한국단편경쟁 2 ⓂⓂ p.18
메가박스 2관	● 302 GV 11:00 - 12:24 (84') 시네마틱 추천 단편 2 ⓂⓂ p.43	305 GV 13:30 - 15:00 (90') 한 채 ⓂⓂ p.30	308 Cine Talk 16:00 - 18:12 (132') 아수라 Ⓜ p.47	311 Actor's Chair 19:30 - 21:20 (110') 절해고도 Ⓜ p.27
메가박스 3관	303 11:00 - 12:45 (105') 존오브인테레스트 Ⓜ p.53	306 Cine Talk 13:30 - 15:23 (113') 비트 Ⓜ p.47	● 309 GV 17:00 - 18:42 (102') 무너지지 않는다 Ⓜ p.40	312 GV 20:00 - 21:39 (99') 청년정치백서- 쇼미더저스티스 Ⓜ p.35

6.23 일

메가박스 1관	401 11:00 - 12:53 (113') 나의올드오크 ⓂⓂ p.51	404 GV 13:30 - 15:16 (106') 딸에대하여 ⓂⓂ p.26	407 16:30 - 18:52 (142') 쇼생크탈출 ⓂⓂ p.52
메가박스 2관	402 11:00 - 12:56 (116') 담요를입은사람 ⓂⓂ p.34	405 GV 14:00 - 15:42 (102') 수카바티:극락축구단 ⓂⓂ p.34	
메가박스 3관	403 GV 11:00 - 12:35 (95') 럭키,아파트 ⓂⓂ p.27	406 14:00 - 16:07 (127') 조이랜드 Ⓜ p.52	

프로그램이벤트

메가박스 남춘천

클로즈업 시네토크 with 김성수



클로즈업 섹션은 주목할 만한 영화인을 초청, 관객과의 만남을 갖는 자리. 올해는 김성수 감독의 상영전을 가진다. 상영작은 <비트>(1997)와 <아수라>(2016)이며, 주성철 영화평론가가 모더레이터로 나선다. p.48

비트	3관 6/22 (토) 13:30	Cine Talk
아수라	2관 6/22 (토) 16:00	Cine Talk

액터스 체어 with 박종환



올해 춘천영화제는 배우와 함께 영화에 대해 이야기 하는 ‘액터스 체어’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그 첫 주인공으로 <절해고도>의 박종환 배우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눈다. p.28

절해고도	2관 6/22 (토) 19:30	Actor's Chair
------	-------------------	---------------

야외이벤트

공지천 청소년푸른쉼터

봄봄 라이브

영화제 기간 춘천영화제 주행사장 공지천 청소년푸른쉼터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프로그램.

	6/20 목	6/21 금	6/22 토	6/23 일
14:10 ~ 14:50			음화듀오	울음큰새
15:10 ~ 15:50		로맨틱나잇	창작민요프로젝트 화로(花爐)	고양이용사
16:10 ~ 16:50		김나린	윤새(Yunsaee)	해밀
17:10 ~ 17:50		이훈주	위고(WEGO)	
18:10 ~ 18:50	Cozy Jazz Office	바버스텝	재즈밴드 MoC	소리

체험 이벤트

	운영 일시	내용
포토박스	6/21 (금)~6/23 (일) 13:00~야외상영 종료	후지필름 헬로포토 포토부스
만들기 체험	6/21 (금)~6/23 (일) 13:00~19:00	패브릭 DIY, 스탬프엽서만들기등
보물찾기	6/21 (금)~6/23 (일) 13:00~14:00	뽑기 이벤트

춘천씨네파크 with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춘천씨네파크는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와 춘천영화제가 함께하는 야외상영 프로그램으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매일 저녁 7시 공지천 청소년푸른쉼터에서 열린다. p.54

월레스와 그로밋 더 클래식 컬렉션	공지천 6/21 (금) 19:00	야외상영
월카	공지천 6/22 (토) 19:00	야외상영
브레드이발소: 셸럽 인 베이커리타운	공지천 6/23 (일) 19:00	야외상영



한국 단편경쟁

심사위원대상(1편) 상금 한화 700만 원 및 트로피
심사위원상(2편) 상금 한화 400만 원 및 트로피

시상·폐막식 공지전 청소년푸른실터 6/23 (일) 17:00

심사위원



승경원 영화평론가
 영화주간지 『씨네21』의 편집장이자 영화평론가. 2009년 ‘씨네21 영화평론상’을 수상하며 영화평론가로 데뷔했다. 2012년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이론 박사 과정을 수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인디다큐 페스티벌 프로그래머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는 『격조의 예술가, 파격의 모험가』(2019), 『얼룩이 번져 영화가 되었습니다』(2024) 등이 있다.



임오정 영화감독
 2008년 <거짓말>, 2013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등을 연출해 미장센 단편영화제 최우수작품상, 대구단편영화제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제44회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인 옴니버스 영화 <한낮의 피크닉> 중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를 연출했으며, 첫 장편 2022년 <지옥만세>는 원헌국제영화제, 뉴욕아시아영화제 등 다수의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다.



정하담 배우
 2014년 박석영 감독의 <들꽃>으로 데뷔, 2015년 <스틸 플라워>, 2017년 <재꽃> 꽃 3부작에 출연했다. <스틸 플라워>로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신인 여우상과 들꽃영화제 여우주연상, 서울독립영화제 독립스타상을 수상했다. <항거: 유관순 이야기>(조민호, 2019) <젊은이의 양지>(신수원, 2020) <헤어질 결심>(박찬욱, 2022) 등에 출연했다.

예선 심사위원



민용준 영화 칼럼니스트
 『무비스트』 『엘르』 『에스콰이어』 기자 출신 영화 저널리스트. 13인의 감독 인터뷰집 『어제의 영화, 오늘의 감독』 『내일의 대화』를 집필했다.



박꽃 기자
 2016년 영화 전문 웹진 『무비스트』에서 취재기자 일을 시작했다. 영화제 심사위원 및 GV 모더레이터 역을 다수 수행했다. 2022년부터 경제일간지 『이투데이』 문화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정시우 기자
 매체 소속 영화 기자를 거쳐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엘르』 『시사저널』 등에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라디오, 네이버 등의 플랫폼을 통해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성규 영화상



춘천영화제의 모태는, 2014년 ‘한 사람으로 시작된 춘천다큐영화제’였다. 2013년에 세상을 떠난 그의 1주기를 맞이해, 함께 영화를 했던 지인들이 꾸민 조출한 상영회였다. 이후 영화제의 규모는 조금씩 커졌지만, 독립영화에 대한 지향은 지속되었다. 2023년 이성규 감독의 10주기를 맞아 고인이 지녔던 독립영화에 대한 헌신의 정신을 잇는 ‘이성규 영화상’을 제정했다. 감독, 제작자, 배우, 스태프, 산업종사자 등을 아울러 수여되는 이상을 통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활동한 독립영화인들이 좀 더 주목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선정위원

고영재 영화감독
 스튜디오노림보와 인디플러그 대표. <우리학교>(2006) <워낭소리>(2008) 등을 제작했으며 이후 수많은 독립영화를 투자, 배급했다. 최근 <아치의 노래, 정태춘>(2021)을 연출했다. 이성규 감독의 유작 <시바, 인생을 던져>(2013)를 배급했다.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나나나: 여배우 민낯 프로젝트>(2011) <사돈의 팔촌>(2015) <너와 극장에서>(2017) 마케팅 총괄, <누에치던방>(2016) 배급, <원나잇스탠드>(2009) 제작, <Jam Docu 강정>(2011) 프로듀서 등을 맡았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이다.

김형석 춘천영화제 운영위원장 겸 프로그래머
 시네마테크 ‘문화학교서울’에서 영화를 시작했고 영화잡지 『스크린』에 10년 동안 있으며 취재기자와 편집장을 지냈다. 프리랜서 영화 저널리스트로 활동했고, 평창국제평화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영화제 일을 시작했고 현재 춘천영화제에서 일하고 있다.

이승준 영화감독
 다큐멘터리 <신의 아이들>(2008)로 전주국제영화제 넷팩상을 수상했다. <달팽이의 별>(2012)로 암스테르담국제다큐영화제 대상, <그림자꽃>(2021)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다. <부재의 기억>(2018)으로 아카데미 단편 다큐 부문 후보에 올랐다. <그대가 조국>(2022)을 연출했다.

이창재 영화감독, 중앙대학교 교수
 <사이에서>(2006) <길위에서>(2012) <목숨>(2014) <노무현입니다>(2017) <문재인입니다>(2023) 등의 다큐를 연출했다. <목숨> 촬영 당시 만난 이성규 감독의 마지막을 기록한 <에필로그>(2015)를 연출했다.

진모영 영화감독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을 역임했고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2014) <올드마린보이>(2017) 등의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이성규 감독의 <시바, 인생을 던져>(2013)의 프로듀서로 영화를 시작했다.

개막작

Opening Film

올해 춘천영화제 개막작은 장권호 감독의 <빛과 몸>이다. 수많은 영화들이 춘천 로케이션 촬영을 거쳐갔지만, 춘천이라는 공간 자체가 테마였던 작품은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장권호 감독의 연작은 '춘천 시리즈'라 불러도 좋을 작품들이다. 춘천을 대표하는 예술가인 마임이스트 유진규가 등장하는 이 작품들은 단편 <탄>(2018)에서 시작해 <요선>(2021)을 거쳐 <빛과 몸>에 이르렀는데, 관광지가 아닌 생활 공간으로서 춘천에 접근해 그 안에서 판타지와 같은 서사를 만들어낸다. 중요한 건 감독의 '춘천 시네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요선>과 <빛과 몸>을 거쳐 장편 3부작을 마무리할 작품이 향후 제작될 예정이며, 그 작품도 춘천영화제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란다.

개막식

공지천 청소년푸른심터 6/20 (목) 19:00

사회자 배우 강소라



개막식	공지천 6/20 목 20:00	개막작
208	2관 6/21 금 15:30	GV

빛과 몸

Body of Light

Korea | 2024 | 106min | Fiction | Color | 15

장권호 감독의 <빛과 몸>은 유진규 마임이스트와 함께 한 세 번째 작품이다. 단편 <탄>(2018)에서 시작한 장권호-유진규의 콜라보레이션은 춘천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요선>(2021)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을 다루었고, <빛과 몸>에선 '무의식의 역사'를 담아낸다. 주인공 한나는 어릴 적 입양되어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신병을 잃게 되고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다. 춘천에 도착한 그는 실종자를 찾는 오래된 전단지를 우연히 접하고, 반세기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게 된다. '카르마'를 테마로 엮어낸 운명의 이야기.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에서 제작 지원한 작품이다.



장권호
JANG Gun-ho

부산출생. 홍익대학교와 파사디나 Art Center College of Design에서 미술과 미디어를 공부하였다. 장편 애니메이션 <해브리소드>를 연출했고, <요선>으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한국경쟁 작품상을 수상했다. <뽕통> <빛과 몸> 등을 연출했다.

한국단편경쟁

Korean Shorts Competition

올해 추천영화제의 한국단편경쟁 부문에선 총 15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1,075편의 출품작 중 예심을 거쳐 선발된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독특한 서사적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들이었다. 실험영화의 톤이 강했던 <샐리>나 영화적 장치를 잘 사용했던 <유아용 욕조><셋둘하나> 등이 좋은 예가 될 듯하며, <명희>나 <아무 잘못 없는>은 단편영화로서 만만치 않은 러닝타임 안에서 장편의 극적 구조를 담아내고 있었다. 장르적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들도 있었다. <함진아비>는 전통 소재를 바탕으로 공포영화의 클리셰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마이다어>는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SF로, 장애인의 소통에 대한 문제를 잔잔하게 보여준다. <관 값>은 장르 영화의 거친 매력이 돋보였다. <토끼 탈을 쓴 여자>는 로맨스와 가벼운 미스터리를 결합한 매력적인 작품이다. '영화적 공기'를 만들어내는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였던 작품으로는 <안녕의 세계> <도축> <다데이, 프라이데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테마 역시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유일한 애니메이션이었던 <나무의 집>과 브이로그 스타일의 <육 년과 여섯 번>은 독특한 스타일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사우트>는 압축적 설정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메타포를 만들어낸다.



한국단편경쟁



관 값

The Price of Death

Korea | 2023 | 25min | Fiction | Color | 15
World Premier

4억 원의 빛이 있는 경준은 자살하려 한다.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향한다. 그곳엔 채권자인 친구 철식과, 오랫동안 의절했던 동생 우림이 있다. 이경민 감독의 <관 값>은 다양한 장르적 요소를 결합한다. 그 전개는 과감하면서도 뻔하지 않다. 하나둘씩 등장하는 '막장'스러운 캐릭터들은 아수라장을 만들고, (배우로도 출연하는) 감독의 에너지 덕에 영화는 좀처럼 텐션을 떨어트리지 않는다. 과감한 앵글과 카메라워크, 빠른 편집 감각 등은 영화 나름의 스타일을 만든다. 어떤 '기세'가 느껴지는 단편.



이경민

LEE Kyung Min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연예과 졸업 후 숭실대학교에서 영화예술을 전공했다. <네이년농들> <3차 성장> <관 값>을 연출하였고 현재는 배우와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201	1관 6/21 금 11:00	GV
304	1관 6/22 토 13:30	GV



함진아비

Hamjinabi

Korea | 2023 | 25min | Fiction | Color | 15

철규에게 갑자기 찾아온 고향 친구 영훈. 결혼을 앞둔 영훈은 철규에게 함진아비를 부탁한다. 그리고 등장한 신부의 이름 순이. 결국 철규는 함을 지게 되고 고향으로 향한다. <함진아비>는 공포영화의 톤과 관습을 충실하게 담아낸다. 특히 '함진아비'라는 소재는 이 장르에 안성맞춤이며, 영화의 미장센 하나하나가 공포영화 장르와 디테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호러 톤을 만들어낸다. 순이를 둘러싼 과거의 사건을 어느 정도 짐작케 하지만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도 영리한 선택.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빌드업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상민

LEE Sangmin

1995년 경기도 안성 출생. 동국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에 진학해 휴학 중이다. 단편영화 <둘이> <돌림춤> 등을 연출했다.

201	1관 6/21 금 11:00	GV
304	1관 6/22 토 13:30	GV

Korean Shorts Com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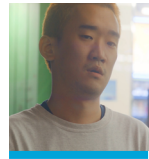
명희

Shining in the Darkness

Korea | 2024 | 40min | Fiction | Color | 19
World Premier

미국 유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대책 없이 살아가는 유성. 전화로 일대일 회화 강습을 하던 그는 우연히 명희라는 고등학생을 알게 된다. 그들은 친구 같은 존재가 된다. 양기현 감독의 <명희>는 '연민'에 대한 이야기다. 아버지 없이 거의 가출 상태인 어머니 밑에서 두 어린 동생을 데리고 살아가는 명희는 어린 나이에 너무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있다. 유성은 그의 삶을 엿보게 된다. 감당할 수 없는 타인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유성은 나름의 연대와 연민을 보이며 작으나마 분노의 행동을 한다. 어두운 이야기지만 밝은 음악으로 톤을 높인다.

201	1관 6/21 금 11:00	GV
304	1관 6/22 토 13:30	GV



양기현

YANG Gihyun

1996년 서울 출생. 현재 보스턴대학교에서 영상(Film & TV)을 전공하고 있다.



나무의 집

The Tree's Home

Korea | 2023 | 12min | Animation | Color | ©

숲을 걷던 남자는 나무 여인을 만난다. 둘은 결혼하고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 나무 여인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 아이를 키워낸다. 2021년에 개봉한 장편 <클라이밍>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공포를 담았다면, <나무의 집>은 육아에 대한 여성의 희생을 보여준다. 나무 여인이 몸(나무)을 깎아 온갖 것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강렬한 메타포로 관객에게 던져지며, 그 이미지는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작품의 테마에 가장 적절한 스타일이다. 한편으로는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메시지' 강한 작품이다.

204	1관 6/21 금 13:30	GV
310	1관 6/22 토 19:30	GV



김혜미

KIM Hyemi

1977년 부산 출생.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다. <배다리>, <찰칵찰칵> 등의 작품이 있으며 2021년에 장편 <클라이밍>을 연출했다.



마이디어

MYDEAR

Korea | 2023 | 25min | Fiction | Color | ©

대학 졸업반 가을은 청각 장애를 지녔다. 우연히 알게 된 AI 어플리케이션 '마이디어'는 그 안에 존재하는 한 남자와 대화를 나눈다. 배리어프리 영화로 제작된 <마이디어>는 근미래(2027년)를 배경으로 한, 일견 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그녀>(2014)를 연상시키는 영화다. 가을은 자막 기능을 통해 캐릭터와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고, 그들 사이의 경계는 점점 사라지는 듯하다. AI 테크놀로지를 소재로 우리 일상 속 장애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비장애인 관객이 간접적으로 장애의 느낌을 상상하게 만든다.

204	1관 6/21 금 13:30	GV
310	1관 6/22 토 19:30	GV



김소희 KIM Sohee

천안 출생. 숭실대학교 졸업.
숭실대학교를 졸업. <소년> <해로>를 연출했다.

전도희 JEON Dohee

원주 출생. <꽃들> <엄마가 결혼한다>를 연출했다.



유아용 욕조

Baby Bathtub

Korea | 2023 | 15min | Fiction | Color | 12

1970년 12월 15일. 만화가 해성의 신간 '조신지몽'이 출간되었다. 욕실에서 아내 수정이 아기 민호를 유아용 욕조에서 목욕시키고 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이상한 사건들. 시간대는 어느새 1990년대를 넘어 2014년에 도달해 있다. 최범석 감독의 <유아용 욕조>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힌트는 '조신지몽'일 것이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의 꿈 이야기처럼, 이 영화엔 꿈의 시간과 현실의 시간이 혼재하며, '이야기'라는 것의 이상한 매력을 탐구하고, 한편으로는 트라우마를 서사화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끝까지 텐션이 떨어지지 않는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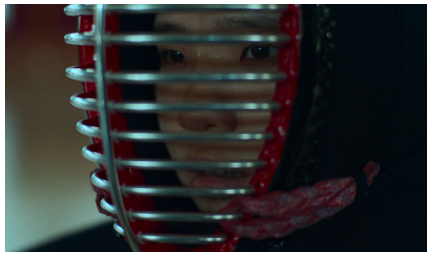
204	1관 6/21 금 13:30	GV
310	1관 6/22 토 19:30	GV



최범석

CHOI Beomseok

1996년 서울 출생.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사회학과 및 한국영화아카데미 연출 전공을 거쳤다. 2022년에 단편 <캐스팅>을 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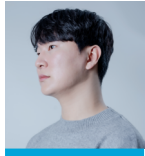


아무잘못 없는

Not anyone's fault

Korea | 2023 | 40min | Fiction | Color | ©

중학생 도윤은 검도 특기생이다. 동생 지후는 누나의 검도를 흉내 내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엄마는 혼수 상태에 빠진다. 전작들에서도 나타나듯, 박찬우 감독의 테마는 '가족'이며, <아무 잘못 없는>은 그 안에서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한다. 가족 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각자에게 역할이 주어진다. 도윤은 그것에서 도피하고 싶지만, 한편으론 사고에 대한 원죄 의식과 동생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캐릭터의 내면에 대한 섬세한 설정과 묘사로 탄탄하게 이야기를 전진시키는 방식이 좋다.



박찬우

PARK Chan-woo

1994년생 대구 영화학교 1기 연출 전공을 수료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다섯 식구><국가유공자>를 연출했다.

204 1관 6/21 금 13:30 GV

310 1관 6/22 토 19:30 GV

한국단편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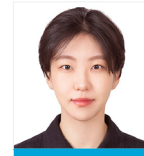


안녕의 세계

About Us

Korea | 2023 | 20min | Fiction | Color | ©

영신의 단짝 준희는 결석 중이다. 친구의 부재 속에서 영신은 준희와의 추억들을 떠올린다. 과연 준희를 어디로 간 것일까? 정연지 감독의 <안녕의 세계>는 사라진 친구를 잊지 않기 위한 마음을 담아낸다. 영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준희가 존재했던 시간(과거)과 준희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현재). 두 부분은 마치 같은 시간대인 것처럼 연결되고, 어느새 관객은 영신의 심정이 되어 준희의 부재에 대한 이유를 가능하게 된다. 섬세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며 생생한 톤을 만들어내는 작품. 예민한 감수성이 빛난다.



정연지

JEONG Yeonji

1996년생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하고 있다. 단편 <미미>를 연출했다.

207 1관 6/21 금 16:30 GV

307 1관 6/22 토 16:30 GV



샬리

Sally

Korea | 2023 | 26min | Experimental | Color | ©

남자는 샬리를 사랑한다. 샬리는 노란색이고 남자는 파란색이다. 하지만 남자는 가끔 다른 사람에게, 샬리에게 없는 색을 발견하고 관심을 보인다. 이정주 감독이 연출, 각본, 제작, 미술, 조명, 녹음, 촬영, 편집, 음악, 색보정 그리고 연기까지 해낸 <샬리>는 마네킨으로 등장하는 샬리와 남자의 사랑 이야기다. 로맨스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을 실험적 형식으로 보여주는 이 영화는, 단편영화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프로덕션 디자인과 '원맨 시스템'의 인상적인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낯설면서도 과감한 작품. 혹은 사랑의 단상.



이정주

LEE Jeongjoo

1989년 서울 출생. 성균관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시나리오를 쓰고 방에서 혼자 찍은 단편영화 <샬리>가 첫 번째 연출작이다.

207 1관 6/21 금 16:30 GV

307 1관 6/22 토 16:30 GV



디-데이, 프라이데이

D-Day, Friday

Korea | 2024 | 27min | Fiction | Color | ©

1984년 5월 광주. 은주는 짝사랑하는 야구선수 지태의 첫 선발 경기를 보러 가고 싶다. 경기 날은 5월 18일. 그 날은 수많은 광주 시민들에게 망자를 추모해야 하는 날이다. 이이다 감독의 <디-데이, 프라이데이>는 광주 민주화항쟁을 다룬 적잖은 장단편영화들 중 꽤 독특한 톤을 지닌 작품이다. 비극적 역사를 시공간적으로 떨어져서 바라보는 이 영화는, 그 거리만큼 담담하고 그 담담함만큼 거대한 슬픔을 담아낸다. 은주가 '미네소타에 사는 존과 펜팔을 한다는 설정도 이야기의 감성에 곁을 더한다.



이이다

LEE Yida

1997년생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했다. 첫 단편 <보글보글>은 대구 단편영화제, 아시아나 국제 단편영화제를 비롯한 국내외 영화제에서 상영됐다.

207 1관 6/21 금 16:30 GV

307 1관 6/22 토 16:30 GV

Korean Shorts Competition



셋둘하나

ThreeTwoOne

Korea | 2024 | 28min | Fiction | Color | 15

‘하나’에겐 3분 일찍 태어난 쌍둥이 언니 ‘영’이 있다. 영에게 일어난 일은 3일 뒤에도 하나에게 일어난다. 갑작스러운 영의 죽음. 그렇다면 3일 후에 하나도 죽게 되는 걸까? 장혜진 감독의 <셋둘하나>는 미비우스의 띠 같은 영화다. 쌍둥이 자매의 평행선 같은 삶을 설정하고, ‘영화 속 영화’를 통해 ‘영화=삶’ 혹은 ‘삶=영화’의 구조를 만든다. 하나는 전지적 목소리(영화의 내레이션)를 듣고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의 시나리오를 본다. 삶은 정해진 걸까?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걸까? 혹은... 그냥 사는 걸까? 흥미로운 서사 실험.



장혜진

JANG Heajin

1997년생. 미국 교환학생 생활을 하며 영화를 관심을 가졌다. 국민대 영상디자인과에서 공부한 뒤, 독립영화 연출팀과 후반작업 프리랜서로 일했다.

207 1관 6/21 금 16:30 GV

307 1관 6/22 토 16:30 GV

한국단편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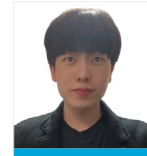


샤우트

Shout

Korea | 2023 | 28min | Fiction | Color | 15
World Premier

밤에 복면을 한 남자가 있다. 들어선 여자는 남자에게 갖은 폭력을 행사한다. 정해진 시간은 1시간. 이용료는 10만 원. 예약이 끝나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온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 하였으나 정의를 없구나.” 구약성서의 욥기 19장 7절 자막으로 시작하는 영화는 ‘폭력’ 그 자체보다는, 스트레사가 폭력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실직과 실연, 사회적 불평등, 정신질환을 앓는 엄마... 작은 방 하나에 지옥 같은 일상을 응축시켜 절규 하듯 폭발시킨 영화.



김정연

KIM Jeong-yeon

1998년 서울출생.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단편영화 제작 동아리에서 영화 작업을 시작했고 이후 꾸준히 단편작업을 하고 있다.

210 1관 6/21 금 19:30 GV

301 1관 6/22 토 11:00 GV



도축

Slaughter

Korea | 2023 | 26min | Fiction | Color | 12

생계를 위해 도축장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상우는 소를 죽이지 못한다. 심지어 소에 연민마저 느끼는 상우는, 소와 함께 도축장을 탈출하려 한다. 윤도영 감독의 <도축>은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에 윤리적 죄 의식을 느끼는 주인공을 보여준다. 그가 처한 상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었을 달레마를 극적으로 압축한 풍경으로, 소고기를 먹진 않지만 돈을 벌기 위해 도축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 꾸마르는 그런 의미에서 웃프다. 촬영과 연기 등 기본적인 만들새에서 뛰어난 작품이다.



윤도영

YUN Do-yeong

1994년 출생. 동아방송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했다. <좋은날> <도축>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등 총 3편의 단편영화를 연출했다.

210 1관 6/21 금 19:30 GV

301 1관 6/22 토 11:00 GV



육년과여섯번

Six Years and Six Times

Korea | 2024 | 15min | Animation, Documentary | Color | 15
World Premier

6년의 연애를 마친 주인공. 그 시간 동안 느낀 것을 전 남친에게 이야기한다. 이후 데이팅 어플을 통해 사랑에 빠지지만 그와의 관계도 오래 가진 못한다. 정보라 감독의 <육년과 여섯 번>은 브이로그 스타일에 담아낸 연애담이다. 다양한 그림체의 애니메이션과 일러스트레이션, 실사와 푸티지 그리고 감독이 직접 출연하는 장면 등 다양한 소스들이 콜라주 된 이 영화는 감독의 취향을 한껏 드러낸다. 연애를 통해 깨달은 감정들과 잊지 못할 경험들, 남아 있는 추억들과 새롭게 꿈꿔 보는 미래. 사적영화의 흥미로운 사례다.



정보라

JEONG Bora

영화 의상팀에서 일하며 연출에 대한 꿈을 키웠다. 만화를 연재하고 새로운 시나리오 구성을 위해 뒤늦게 철학을 전공했다. 이후 글과 그림을 더한 영상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210 1관 6/21 금 19:30 GV

301 1관 6/22 토 11:00 GV

Korean Shorts Com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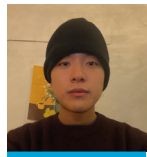


토끼 탈을 쓴 여자

The Bunny Mascot Girl

Korea | 2023 | 21min | Fiction | Color | 15
World Premier

승우는 성인용품 가게 앞에서 토끼 탈을 쓰고 전단지 나눠 주는 여자에게서 묘한 감정을 느낀다. 급기야 자신도 그 일을 하게 되며, 여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 애쓴다. 강상우 감독의 <토끼 탈을 쓴 여자>는 산뜻한 톤의 미스터리 로맨스다. 탈을 써야 커플이 될 수 있는 아이러니 속에서 남자는 여자의 진짜 얼굴을 알고 싶지만, 그래서 지레 짐작한 여성과 연애를 시작하지만, 여전히 '탈 안의 얼굴'은 미지의 대상이다. 디테일한 단서들이 제시되면서 관객과 게임을 펼치며 서사의 탄력을 갖춰가는, 숨씨 좋은 영화.



강상우

GAHNG Sangwoo

1998년생. 성결대학교에서 영화영상학과 연출을 전공했다. 단편 <사랑수련원> <토끼 탈을 쓴 여자>를 연출했다.

210	1관 6/21 금 19:30	GV
301	1관 6/22 토 11:00	GV

인디 시네마

Indie Cinema

인디 시네마 섹션에선 6편의 장편과 3편의 단편이 상영된다. 장편에선 묘한 경향성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가족의 테마다. 정범과 허장 감독이 공동 연출한 <한 채>와 강유가람 감독의 <력키, 아파트>는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얽힌 욕망을 중심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인물들이 겪는 모순적 현실을 드러낸다. <딸에 대하여> 역시 엄마와 딸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 시대에 가족을 이룬다는 것의 의미를 담아낸다. <해야 할 일>은 구조 조정의 문제를 내밀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모습을 담아낸다. 한편 <그 여름날의 거짓말>은 서사를 따라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진실과 거짓과 비밀과 모호함이 뒤엉킨 영화다. '인디 단편'에선 추천영화제가 추천하는 세 편의 단편을 담았다. 이재은 감독과 함께 <성적표의 김민영>(2022)을 연출했던 임지선 감독의 <헨젤 : 두 개의 교복 치마>는 또 하나의 독특한 성장영화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다. 이가홍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는 최근 나온 단편 중 가장 따스한 결을 지닌 작품일 것이다. <다리 밑 도영>은 독특한 퍼포먼스를 통해 죽음과 이별의 테마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액터스 체어'의 주인공은 <절해고도>의 박종환 배우다. 이 작품에서의 인상적인 연기뿐만 아니라, 그의 연기에 대한 생각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그여름날의 거짓말

That Summer's Lie

Korea | 2023 | 138min | Fiction | Color | 15

고등학교 1학년인 다영은 여름 방학 숙제로 낸 작문에, 남자친구 병훈과의 추억을 적어낸다. 그것을 읽은 담임 교사는 다소 '위험한' 내용에 다영을 추궁하고, 다영은 반성문을 써야 한다. 손현록 감독의 <그여름의 거짓말>은 서사의 힘으로 전진한다. 다영의 관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일부는 진실인 듯하고, 어떤 부분은 거짓인 듯하며, 비밀처럼 숨겨져 있는 대목도 있다. 그여름날에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미스터리 로맨스인 <그여름날의 거짓말>은 결국 '관점의 진실'을 통해 모호하면서도 흥미로운 텍스트가 된다.



손현록

SOHN Hyun-lok

1992년 부산출생. 홍익대학교 영상영화학과를 거쳐 영상원 재학 중이다. <아가페><갈 곳 없는><박동혁, 동철><부리수거일><정서, 정사> 등의 단편을 연출했다.

209 3관 6/21 금 15:30 GV

인디시네마



럭키,아파트

Lucky, Apartment

Korea | 2024 | 95min | Fiction | Color | 12

레즈비언 커플 선우와 희서는 '영끌'을 통해 아파트를 마련한다. 하지만 선우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경제적 부담의 균형은 무너진다. 게다가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악취는 그들의 가정을 더욱 위협한다. 다큐멘터리스트 강유가람 감독의 첫 장편 극영화 <럭키, 아파트>는 한국 사회의 욕망 기제인 '아파트'를 소재로, 혐오와 공포의 테마를 다룬 쿼어 시네마다. 사적이면 서도 공동의 공간인 아파트 단지에서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야 하는 그들. 하지만 영화는 숨겨진 이야기를 드러내며 의외의 따스한 결말을 담아낸다.



강유가람

KANGYU Garam

<이태원>으로 들꽃영화상 다큐멘터리상을, <우리는 매일매일>로 서울독립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럭키, 아파트>는 그녀의 일곱 번째 작품이자 첫 극영화다.

403 3관 6/23 일 11:00 GV



딸에 대하여

Concerning My Daughter

Korea | 2023 | 106min | Fiction | Color | 6

요양보호사인 엄마와 딸 그린. 그린은 독립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다. 동성 연인 레인과 함께 엄마 집에 들어와 살게 되고, 셋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다. 김혜진 작가의 동명 원작 소설을 각색한 이 작품은 쿼어 시네마이며 동시에 노령화 사회의 현실을 담아낸, 독특한 시선의 '가족 시네마'이다. 가치관의 차이를 지닌 사람들이 조금씩 가까워지며 가족을 이뤄가는 과정을 꼼꼼히 담아내는 이미랑 감독의 탄탄한 연출력이 인상적인 영화. 우리 시대에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용히 묻는 작품이다.



이미랑

LEE Mi-rang

서울예술대학교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문예창작과 영화를 공부했다. 단편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목욕><춘정>을 연출했다.

404 1관 6/23 일 13:30 GV



절해고도

A Lonely Island in the Distant Sea

Korea | 2023 | 110min | Fiction | Color | 12

올해 춘천영화제는 배우와 함께 영화에 대해 이야기 하는 '액터스 체어' 프로그램을 신설했고, 그 첫 주인공으로 <절해고도>의 박종환 배우를 초청했다. 김미영 감독의 2023년 영화 <절해고도>는 한 남자의 오디세이 같은 이야기다. 촉망받는 조각가였지만 이혼 후 딸을 키우며 인테리어 업자로 살아가는 윤철. 딸 지나는 미술적 재능을 마다 하고 출가하여 불자가 되고, 윤철은 영지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을 빠진다. 여기서 박종환은 삶에 지친 예술가에서 현실적인 남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마치 예픽의 주인공처럼 세월을 담아 보여준다.



김미영

KIM Miyoung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졸업했다. 단편 <서울한강><파인다><두개의 밤><내시절의 모험>과 장편 <일어서는 인간><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절해고도>를 만들었다.

311 2관 6/22 토 19:30 Actor's Chair

Indie Cinema



배우 박종환

규정되지 않는, 정박하지 않는

박종환은 파악하기 쉽지 않은 배우다. 관객들이 그에게 다는 가장 많은 댓글은 “이 배우가 그 배우였어?”다. <타인은 지옥이다>(2019)에서 변득중 & 변득수 쌍둥이를 1인2역으로 보여주었을 때, 그가 <검사외전>(2016)의 취조실에서 사망한 이진석 혹은 <밤치기>(2017)의 내성적인 매력남 진혁이라고 곧장 떠올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니, 거의 없을 것이다.

<양치기들>(2016)나 <얼굴들>(2019) 같은 영화를 통해 그가 독립영화 전문 배우라고 생각했다면, <남만닥터 김사부 2>(2020)나 <소년심판>(2022)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그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 수도 있을 거다. <소설가 구보의 하루>(2021)의 구보를 보고 과묵하고 조용한 박종환을 떠올렸다면, 그 반대편엔 쉼새 없이 떠드는 <임투기>(2013)의 고미킹이 있다.

이분법으로 정의 내릴 수 없는 연기자. 하드캐리 할 때도 있지만 작품에 조용히 배어들기도 하는 배우. <컨버세이션>(2023)의 승진처럼 뉘앙스와 디테일을 섬세하게 감정으로 만들어낼 때도 있지만, <백역사>(2014) 같은 영화에선 사랑 앞에서 직진하는 순정남. 같은 범죄의 세계 안에 있더라도 <모범택시 2>(2023)에선 비참한 최후를 맞는 빌런이라면, <원라인>(2017)에선 거칠면서도 연민이 갈 수밖에 없는 인물. <미지수>(2023)에선 종잡을 수 없는, <픽션들>(2022)에선 불안에 떠는, <콘크리트 유토피아>(2022)에선 재수 없고 뽀뽀한, 다양한 캐릭터들. 그런 의미에서 <절해고도>(2023)는 박종환이라는 배우의 중간 기착지처럼 느껴진다. 그동안 쌓아왔던 캐릭터의 모든 감정을 삶의 희로애락에 녹여 보여주는 윤철이라는 캐릭터. 그는 한 인물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며, 배우로서 다음 기착지까지 가기 위해 스스로를 가다듬는다. 춘천영화제의 첫 ‘액터스 체어’에 <절해고도>의 박종환을 초청한 이유다.



한 채

The Berefts

Korea | 2023 | 90min | Fiction | Color | 12

문호에겐 딸 고은이 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고은. 문호는 고은을 도경에게 결혼시키려 한다. 아파트 분양을 위한 위장 결혼이다. 분양에 성공하지만, 브로커는 문호에게 은밀한 제안을 한다. 정범과 허장 감독이 공동 연출한 <한 채>는 '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 '가족'으로 귀결된다. 한국 사회에서 로또처럼 여겨지는 분양권을 위해 급조된 가족은 그 목적을 이룬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는 황량해 보이면서도 의외의 온기를 지닌다. 다양한 장르 요소를 품고 있는 드라마.

305 2관 6/22 금 13:30 GV



정범 JEONG Beom

단편 <가두라> 연출, <작전> <짐기울다> 촬영, <담배맛 기행> 배우로 참여했다.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했다.

허장 HUR Jang

동계 패럴림픽 다큐멘터리 <두려워하지 마라> 프로덕션 매니저, <강원도> 프로듀서를 맡았다.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했다.



해야 할 일

Work to Do

Korea | 2023 | 101min | Fiction | Color | 12

인사 팀으로 발령 받은 강준희 대리는 불황을 맞이한 조선소 내에서 구조 조정 일을 맡게 된다. 끝없는 엑셀 작업을 통해 해고자를 숙아내는 일. 여기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들이 얽여 있다. 임금 삭감, 순환 보직, 대기 발령 그리고 해고. 박홍준 감독의 <해야 할 일>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 시장에서 벌어지는 차갑고 잔인한 현실의 속내를 격한 감정 없이 있는 그대로 담아낸다. 결국인 타인의 밭줄을 끊는 일임에도, 그 일을 해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딜레마. 그 안에서 영화는 휴머니즘을 잃지 않는다.

211 2관 6/21 금 18:30 GV



박홍준

PARK Hongjun

단편 <이산날>을 연출하여, 19회 부산독립영화제, 2018인디포럼 등 여러 영화제에 초청받았다.



헨젤: 두 개의 교복치마

Hansel: Two School Skirts

Korea | 2024 | 28min | Fiction | Color | 6

음악 시간 준비물인 리코더를 가져오기 위해 정신없이 집으로 뛰는 한슬. 제 시간에 돌아와야 벌칙으로 앞이나 노래를 하지 않는다. 이재는 감독과 함께 장편 <성적표의 김민영>(2022)를 연출했던 임지선 감독은 또 한 편의 독특한 성장 영화를 선보인다. 학교 생활의 긴장 속에서 요실금이라는 다소 부끄러운 질병이 생긴 한슬은 작은 계기를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된다. 자칫 어두운 톤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영화는 시종일관 밝은 톤을 놓지 않는다. 10대 시절 무엇인가를 '극복'하며 성장한다는 것에 대한 영화.



임지선

LIM Jiseon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 재학 중 단편 <노이즈>를 연출했고, 이재는 감독과 공동 연출한 장편 <성적표의 김민영>은 전주국제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다.

212 3관 6/21 금 19:00 GV



다리 밑 도영

Underneath the Bridge

Korea | 2023 | 34min | Fiction | Color | 12

어느 여름날, 도영은 친동생 도희를 사고로 잃는다. 다시 만날 수 없는 걸까? 다행히 영혼을 저승으로 이끄는 존재들이 실수를 하고, 도영은 도희와 재회한다. 박지현 감독의 <다리 밑 도영>은 죽음과 그 이후 세계를, 관념이 아닌 퍼포먼스의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의식은 슬프거나 처연하지 않고, 교복입은 학생들의 안무로 표현되듯 밝고 유희적인 느낌이다. 사건을 다루는 감독의 상상력의 돋보이는 작품.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담아내는 스타일도 예사롭지 않다.

212 3관 6/21 금 19:00 GV



박지현

PARK Ji-hyeon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을 졸업했다. <녹음이 빛나는 일대기>를 통해 영화계에 입문했으며, 영화와 무대 작업을 통해 안무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오고 있다.



8월의 크리스마스

Christmas in Summer

Korea | 2023 | 30min | Fiction | Color | ©

은수는 결혼을 앞두고, 어린 시절 헤어진 아빠를 만나기 위해 강릉에 간다. 하지만 아빠의 흔적은 이미 지워진 지 오래. 이때 우연히 탄 택시 안에서 그는 의외의 만남을 가진다. 이가홍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는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는 판타지 드라마다. IMF로 인해 한국 사회가 겪었던 집단적 트라우마는 각 가정에도 수많은 슬픈 사연을 만들어냈다. 이 시기 꼬마였던 세대는 이제 성인이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고, 그는 과거 가난으로 분열되었던 가정을 끌어안으려 한다. 허진호 감독의 동명 장편처럼, 잔잔한 톤으로 몽클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이가홍

LEE Gahong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영화과, 전문사극영화사나리오 전공.
단편 <그 새끼를 죽였어야 했는데> <광장> <내가 사랑한 것들을 기억할게>를 연출했다.

212

3관 6/21 금 19:00

GV

WATCHA PEDIA 누적 별점 700,000,000+

WATCHA PEDIA

**나만의 별점과 코멘트를
기록하고 간직해 보세요**

소소한 생각부터 진지한 평론까지,
좀비 영화부터 정주행 추천 웹툰 까지.
리뷰를 읽고 쓰고 컬렉션을 만들어
공유해 보세요.

**뭘 봐야 하지?
왓챠피디아에서 찾아보세요!**

내 취향에 딱 맞는 콘텐츠를 7억개 이상의
평가 데이터에 기반해 정확하게 찾아드립니다.
찾아본 콘텐츠를 어디서 감상할 수 있는지도
바로 안내해 드려요.



다큐 포커스

Documentary Focus

올해 춘천영화제의 다큐 포커스 섹션에선 전혀 지루하지 않은, 개성 있는 세 편의 다큐를 선보인다. 박정미 감독의 <담요를 입은 사람>은 혈혈단신으로 감행한 여행의 기록이다. 영국에서 시작해 유럽을 경유해 튀르키예와 이란 그리고 인도에 달하는 그의 여정은 흥미로우면서도 고행에 가까운 길이다. 선호빈, 나바루 감독의 <수카바티: 극락축구단>은 대한민국 프로 축구 서포터즈의 역사이다. 자신들의 팀을 잃은 팬들이 다시 열정을 불태우는 투쟁의 과정을 담아낸다. 축구 팬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작품이다. <카운터스>(2018) <모아>(2022)를 만든 이일하 감독의 신작 <청년정치백서-쇼미더저스티스>는 흥미진진한 정치 다큐이다.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를 정치적 가치로 삼는 두 청년은 한국의 거친 정치판에서 좌충우돌한다.



담요를 입은 사람

Blanket Wearer

Korea | 2024 | 116min | Documentary | Color | ㉔

직장을 그만두고 영국으로 건너간 다큐의 주인공 정미는 1년 동안 돈 안 쓰고 생활하기에 도전한다. 대안 주거를 통해 잘 곳을 마련하고, 스낵 다이빙으로 버린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던 그는 런던을 벗어나 영국 각지의 자족 공동체를 체험하고, 이후 히치하이킹을 통해 긴 여정에 오른다. 『0원으로 사는 삶』(2022)의 저자이기도 한 박정미 감독의 첫 다큐인 <담요를 입은 사람>은 한 인간의 유목민적 삶과 함께 환경적 이슈를 담는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화두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박정미
PARK Jeongmi

2022년 '0원살이' 여정 이야기를 담은 책 <0원으로 사는 삶>을 출간했다. 현재 외딴 숲속에 있는 빈집을 고쳐살며, 첫 장편 <담요를 입은 사람>을 제작했다.

402 2관 6/23 일 11:00

다큐 포커스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FC Sukhavati

Korea | 2023 | 102min | Documentary | Color | ㉔

안양LG치타스는 2000년대 초 K리그의 강팀 중 하나. RED는 그 서포터즈다. 그런데 2003년에 갑자기 서울로 연고지를 옮기고, RED는 줄지에 응원하던 팀을 잃고 만다. 그들의 새로운 팀이 된 2부 리그의 FC안양 서포터즈는 홈팀의 1부 리그 승격을 꿈꾸며 열정적인 응원을 이어간다. <수카바티: 극락축구단>은 K리그 팬덤의 역사를 다룬다. 그들에게 축구는 일상이자 희로애락이고 삶이자 기다림이다. 그리고 극락의 순간을 느끼게 해주는 그 무엇이다. 축구 팬이라면 필견의 영화. 감동적일 것이다.



선호빈 SUN Hobin
나바루 NA Baru

선호빈은 <레즈> <B급 며느리>를 연출했다.
나바루는 <바보들의 행군> <두 번째 행군>을 연출했다.

405 2관 6/23 일 14:00 GV



청년정치백서-쇼미더저스티스

SHOW ME THE JUSTICE

Korea | 2023 | 99min | Documentary | Color | ㉔

대구 출신의 젊은 사업가 김현진은 매일 광화문으로 출근해 태극기 부대의 응원을 받으며 보수 정치인을 꿈꾼다. 정의당 내 청년 정치인인 김창인은 사회적 민주주의의 가치를 걸고 진보 정치를 꿈꾼다. 과연 그들은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카운터스>(2018) <모아>(2022) 등 흥미로운 다큐를 연출했던 이일하 감독의 정치적 양극단을 오가며, 두 청년 정치인을 카메라에 담는다. 그들은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며, 어떻게 배신 당하고, 어떻게 세상을 배우는가. 대한민국 정치현실에 대한 신랄한 보고서.



이일하
LEE Ilha

일본 하라 카즈오 감독 아래서 다큐멘터리 박사 과정을 받았다. 주요 작품으로 <울보 권투부> <카운터스> <모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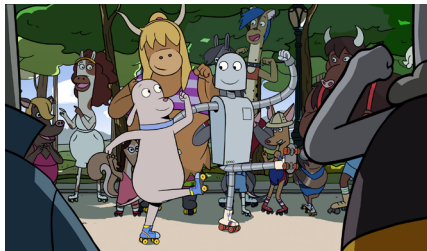
312 3관 6/22 금 20:00 GV

Documentary Focus

애니 초이스

Animation Choice

올해 애니 초이스 섹션에선 외국의 아트 애니메이션 한 편과, 한국의 걸작 단편 다섯 편을 상영한다. <로봇 드림>은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 뉴욕의 맨해튼을 배경으로, 홀로 사는 개와 로봇의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다섯 편의 한국 단편 애니메이션은 각양각색의 개성을 지니고 있다. <안 할 이유 없는 임신>은 남성도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애니메이션이다. 코미디 톤의 작품으로, 그 안에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을 결합했다. <향해의 끝>은 섬세한 그림체 안에 바다를 배경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담아낸다. <스위밍>은 뛰어난 상상력의 애니메이션이다. 미래를 배경으로 무의식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SNS의 세계가 펼쳐진다. <일출전야>는 '과로 사회'인 대한민국에 대한 재치 있는 풍자다. 마지막으로 <유령이 떠난 자리>는 타임랩스 영상으로 담아낸 고독의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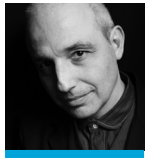
로봇 드림

Robot Dreams

Spain, France | 2023 | 102min | Animation | Color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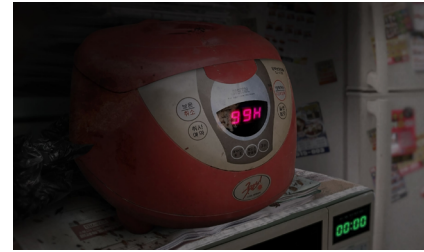
뉴욕 맨해튼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개는 TV를 보다가 광고에 나오는 로봇을 주문하고, 둘은 단짝이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여름이 되자 해수욕장에 놀러간 개와 로봇. 하지만 그들은 예상치 못한 이별을 하게 된다. 고독과 우정에 대해, 대사 한 줄 없지만 깊이 있고 풍부한 서사를 지니고 있는 영화.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를 비롯해 OST도 잘 조율되어 있다. 단순해 보이지만 디테일을 꼼꼼하게 담아내는 그림체도 관객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요소. 여운이 길게 가는 애니메이션이다.

206 3관 6/21 금 13:00



파블로 베르헤르
Pablo BERGER

스페인의 영화감독. <백성공주의 마지막 키스> 등 여러 장편을 만들었다. <로봇 드림>은 그의 첫 애니메이션이다.



유령이 떠난 자리

A Long Alone

Korea | 2023 | 8min | Animation | Color | 12

2022년 1월 1일. 텔레비전 화면만이 해가 바뀌었음을 알려 줄 뿐, 인물이 장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후 등장하는 죽음 이후의 풍경이 이어진다. 여은아 감독의 <유령이 떠난 자리>는 타임랩스 방식으로 보이는 압축적 영상을 통해 한 인간이 고독사한 후 1년 동안의 시간을 공간 중심적인 방식으로 담아낸다. 시계, 가족사진, 이력서... 망자의 흔적과도 같은 사물들은 주인이 사라진 빈 방을 1년 동안 지키고, 그 위엔 먼지가 쌓이며 음식물은 썩어간다. 많은 생각을 떠오르게 만드는 작품이다.



여은아
YEO Eun-a

상명대학교에서 디지털콘텐츠,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했다. <고지><장미여관><심야상영관> 등을 연출했다.

202 2관 6/21 금 11:00



향해의 끝

THE END OF VOYAGE

Korea | 2023 | 10min | Animation | Color | 12

한 중년 남자가 항해중이다. 어디선가 검은 재가 날아 오고, 바닷물은 검게 섞여간다. 고래는 병들었고, 폐션에선 기름이 흘러나온다. 그러한 바다를 헤치고 과연 그는 어디로 가는 걸까? 최민호 감독의 <향해의 끝>은 위기에 처한 지구의 환경을 드러낸다. 그 어떤 다큐멘터리보다 더 인상적으로 오염된 지구의 현실을 드러내는 <향해의 끝>은 주인공의 대사처럼 우린 어쩌면 "너무 멀리 와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최민호 감독 특유의 리얼한 그림체가 작품의 테마를 더욱 강조한다.



최민호
CHOI Minho

1970년 서울 출생. 1999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애니메이션학과에 입학하여 2004년에 졸업하였다. 현재 프리랜서 애니메이터에서 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202 2관 6/21 금 11:00



일출전야

Before the Sun Rises

Korea | 2022 | 8min | Animation | Color | 12

수면 부족 과로사가 늘어나면서, 사자들의 명부를 관리하는 저승사자도 과로에 시달리게 된다. 그는 참다 못해 이승으로 건너와 사람들을 재우기 위해 애쓴다. 황시원 감독의 <일출전야>는 아직도 살인적인 노동 시간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그 지옥 같은 현실을 타개해주는 존재가 현실이 아닌 저 세상에서 왔다는 설정은 씩씩한 유머. 저승사자들끼리도 실제 경쟁을 벌이는 부분은 경쟁 사회의 일면을 보여준다.

202 2관 6/21 금 11:00



황시원

HWANG Siwon

1998년 수원출생.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영상디자인과를 졸업했다.



스위밍

Swimming

Korea | 2023 | 11min | Animation | Color | 12

2102년의 미래. 무의식의 세계를 공개하는 SNS '스위밍'을 많은 유저들이 사용한다. 주인공 나빌은 블랙다이버들을 통해, 헤어진 연인의 무의식을 조작하려다가 실수로 자신의 무의식을 폭발시켜 버리고 만다. 2023년 서울단편영화제 단편 부문 대상을 수상한 서새롬 감독의 <스위밍>은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의 이슈를 보여준다. '상상력'의 측면에서 최근 애니메이션 중 가장 뛰어난 작품. 엔딩 크레딧 끝나고 쿠키 영상이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202 2관 6/21 금 11:00



서새롬

SEO Saerom

1988년 부산출생. 계원예술대학 애니메이션과를 졸업하였다. 현재 낭낭단 스튜디오를 이끌고 있다.



안 할 이유 없는 임신

How to Get Your Man Pregnant

Korea | 2023 | 30min | Animation | Color | 15

2030년 대한민국. 남성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 난임으로 고생하던 정환과 유진 부부에겐 희소식이다. 노경무 감독의 <안 할 이유 없는 임신>은 작년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국내외 20여 개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작년 한국 독립 애니메이션계의 베스트셀러이다. 어쩌면 '저출산 시대'에 가장 요긴할(?) 이 작품은 작지만 기발한 설정에서 시작해 30분이라는 만만치 않은 러닝타임을 꽉 채우는 서사적 충실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결말로 깔끔하게 영화를 닫는다.

202 2관 6/21 금 11:00



노경무

NOH Gyeongmu

1989년 마산출생. 2021년 한국영화아카데미 애니메이션전공 37기 졸업했고 단편 <파란거인>을 연출했다.

시네마틱 춘천

Cinematic ChunCheon

춘천 및 강원 지역의 영화적 성과를 한 자리에 모으는 '시네마틱 춘천' 섹션은 올해 두 편의 장편과 7편의 단편을 준비했다. 장편으로는 개막작으로도 선정된 장권호 감독의 <빛과 몸>과 함께 다큐멘터리 <무너지지 않는다>를 상영한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폐관과 철거를 둘러싼 사건과 투쟁을 담은 이 작품은 우리 사회에서 문화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단편을 살펴보면 강원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감독의 작품이 눈에 띈다. 바로 이유진 감독의 <이부자리>와 한원영 감독의 <되돌리기>. 이외에도 이루리 감독의 <소년유랑>은 스타일리시한 화면이 인상적이며, 유이수 감독의 <명태>는 강원 지역의 현실적 이슈와 닿아 있는 작품이다. 신지훈 감독의 <대답>, 김도균 감독의 <거미> 그리고 정유리 감독의 <셋둘하나, 김치> 등은 일상의 윤리부터 장애인의 삶 그리고 가부장제까지 다양한 테마를 담고 있다.

시네마틱 춘천



빛과 몸

Body of Light

Korea | 2024 | 106min | Fiction | color+b/w | 15

장권호 감독의 <빛과 몸>은 유진규 마임리스트와 함께 한 세 번째 작품이다. 단편 <탄>(2018)에서 시작한 장권호-유진규의 콜라보레이션은 춘천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요선>(2021)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을 다루었고, <빛과 몸>에선 '무의식의 역사'를 담아낸다. 주인공 한나는 어릴 적 입양되어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신병을 잃게 되고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다. 춘천에 도착한 그는 실종자를 찾는 오래된 전단지를 우연히 접하고, 반세기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게 된다. '카르마'를 테마로 엮어낸 운명의 이야기.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에서 제작 지원한 작품이다.



장권호

JANG Gun-ho

부산출생. 홍익대학교와 파사디나 Art Center College of Design에서 미술과 미디어를 공부하였다. 장편 애니메이션 <헤븐리 소드>를 연출했고, <요선>으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한국경쟁 작품상을 수상했다. <똥통> <빛과 몸> 등을 연출했다.

개막식	공지전 6/20 목 20:00	개막작
208	2관 6/21 금 15:30	GV



무너지지 않는다

Wonju Academy Cinema

Korea | 2024 | 102min | Documentary | Color | 12

1963년에 개관된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단관 극장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축물이다. 하지만 2022년 7월에 취임한 원강수 시장은 그곳을 허물고 주차장과 야외 공연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투쟁을 시작한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지와 폭력의 기록이다. 60년 된 극장을 민주적 절차 없이 허물어 버리는 권력의 횡포 앞에서 '문화의 가치'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 이 다큐는 묻는다.



김귀민, 이미현, 최은지

KIM Gwimin, LEE Mihyun, CHOI Eunji

김귀민은 원주에서 문화 콘텐츠를 전공하고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에 함께했다. 이미현은 대학에서 스토리텔링을 공부하고 방송사 PD로 일했다. 현재는 독립출판 일을 하고 있다. 최은지는 미디어 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강사 네트워크 비영리 단체를 운영 중이다.

309 3관 6/22 토 17:00 GV



소년유랑

you know, there are ghosts under the tree

Korea | 2023 | 14min | Fiction | Color | 15

비인과 태호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학교 축제 전야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칼리는 부적을 그려주며 말한다. 전야제가 열리는 신목 아래에 그늘 넓이만큼 어린 귀신들이 모여 있다고. 이루리 감독의 <소년유랑>은 학교를 거쳐간 아이들과 그 공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공동학원' 프로젝트의 첫 단편으로, 아웃사이더인 두 아이가 겪는 어느 여름날을 보여준다. 과연 그들은 내년엔 축제 전야제에 참여할 수 있을까? 뮤직 비디오편을 연상시키는 감각적 화면이 인상적. 주인공을 맡은 두 배우(김규리 정다원)의 느낌이 좋다.



이루리

LEE Ruri

서울예술대 영화과를 졸업. 단편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 상영되었다. <소년유랑>은 '공동학원' 필름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품이다.

205 2관 6/21 금 13:00 GV

Cinematic ChunCheon



거미

GO RYEO JANG

Korea | 2024 | 16min | Fiction | Color | ©
World Premier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버스정류장에서 한 여성이 발견된다. 그의 이름은 진희. 장애를 지니고 있지만, 그는 그 마을에서 곳곳이 살아간다. 김도균 감독의 <거미>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정함을 보여준다. 마치 고려장처럼 한 마을에 버려지다시피 위탁된 주인공은, 한 가정의 구성원이자 정성스러운 간병인이 되어 살아간다. 과연 그의 그러한 삶은 이전보다 행복할까? 강원도 홍천 지역의 자연을 배경으로 촬영된 작품이다.



김도균
KIM Do Guyn

2000년대 초반부터 촬영 스태프로 활동했고, <더박스>의 촬영감독이 되었다. <거미>는 그의 첫 연출작이다.

205 2관 6/21 금 13:00 GV

시네마틱존전



셋둘하나,김치

Three Two One, Kimchi

Korea | 2023 | 18min | Fiction | Color | ©
World Premier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하기로 한 셋째 며느리. 시댁 식구들에게 이혼 소식을 알리기 전, 나이 어린 윗동서 형님들과 마지막 김장에 참여한다. 손조롭지만은 않은 김치 담그기. 그들의 갈등은 점점 고조된다. 정유리 감독의 <셋둘하나, 김치>는 '시댁'의 강요 속에서 매년 김장이라는 의식을 치르는 세 며느리를 통해, 여전히 살아 있는 한국의 가부장제와 그 안에서의 피곤한 상황을 보여준다. 티격태격하는 세 여자의 모습은 코미디 장르는 연상시키지만, 마지막 장면은 영화 전체를 다잡아주며 텐션을 올린다.



정유리
JEONG Yuri

춘천에 위치한 '강원애니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단편 <심봉사> <러브인파서블> <시험보는 날>을 연출했다.

205 2관 6/21 금 13:00 GV



되돌리기

Rewind

Korea | 2023 | 24min | Fiction | Color | ©

새터민인 민석은 강원도 바닷가의 양식장에서 일한다. 그의 연인은 인근 군부대 장교 소희.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함에도 쉽게 그 관계를 드러내지 못한다. 한원영 감독의 <되돌리기>는 분단 상황을 압축해 놓은 듯한 어느 남녀가 겪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여느 연인들처럼 그들은 싸우고 화해하고 그렇게 사랑하지만,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정치적 변수다. 북한에서 동해상에 미사일을 쏘면 부대에 비상이 걸리고, 만나기로 한 약속은 지켜지기 힘들다. 이 모든 상황을 되돌릴 순 없을까?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지원작이다.



한원영
HAN Won Young

1990년 강릉 출생. 현재 강원도의 다양한 공간과 삶을 담아내는 지역 기반의 극영화를 연출하고 있다. <눈 먼 사람> <심장의 벌레>를 연출했다.

205 2관 6/21 금 13:00 GV

Cinematic ChunCheon



이부자리

Dad's Beddy

Korea | 2024 | 29min | Fiction | Color | ©

혜영과 은지는 사촌이다. 혜영의 아빠는 세상을 떠났고, 은지의 아빠는 재혼하려 한다. 아빠를 그리워하는 혜영과, 아빠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은지. 두 자매는 서로를 위로한다. 이유진 감독의 <이부자리>는 '아버지의 부재'라는 상황을 공유하는 사촌 자매의 잔잔한 성장 영화다.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진 않지만, <이부자리>는 부모 세대에 의해 가족의 변화를 겪을 때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 아픔을 섬세하게 짚어낸다. 한 차례 진통을 겪은 혜영과 은지가 함께 잠든 모습의 평안함은 작은 감동을 준다. 강원영상위원회 지원작이다.



이유진
LEE Yujin

1999년생.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를 졸업했다. 단편 <내 생애 첫>을 연출했고, <이부자리>는 두 번째 연출작이다.

302 2관 6/22 토 11:00 G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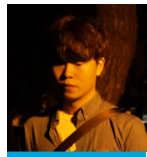


대답

The Answer

Korea | 2022 | 26min | Fiction | Color | 15

대학생인 이레의 아버지는 자그마한 교회 목사이다.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등록금을 마련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 그의 꿈은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딱 100만 원만 써보는 것.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돈다발과 명품 지갑을 줌게 된다. <대답>은 종교적 신념과 일상의 윤리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가난한 현실이 주는 박탈감을 벗어나고 싶은 이레는, 신이 물질로서 대답했다고 믿지만 그것은 어쩌면 악마의 유혹이다. 잔잔한 드라마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스릴러 영화의 긴장감을 지녔다.



신지훈

SHIN Ji-hoon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화를 전공. 단편 <흔적>을 연출했다.

302 2관 6/22 토 11:00 GV



명태

Pollock

Korea | 2024 | 29min | Fiction | Color | 12
World Premier

속초의 겨울 명태 덕장은 작업이 한창이다. 영화는 동료 옥순의 아들 진철이 사라진 것을 알고 도우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 석훈을 의심하게 된다. <명태>는 개발 붐이 일고 있는 동해안 지역을 배경으로 한다. 리조트나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땅을 팔고 떠나고, 젊은이들은 건설 현장의 노동자가 된다. 강애심이나 변중희 같은 배우들의 얼굴 클로즈업 이미지가 인상적인 작품. 후반으로 가면 살짝 장르 영화의 느낌이 나면서 긴장감을 높인다.



유이수

YOU Isu

1998년생.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했고 단편영화 스테프로 활동했다. <명태>는 그의 첫 단편 연출작이다.

302 2관 6/22 토 11:00 GV

강원도 영화인들의 정보 교류에서부터 독립영화 제작, 정책 생산과 연대, 환경 개선 등 독립영화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합니다.

| 후원 계좌

예금주명 : 강원독립영화협회

계좌번호 : (NH농협은행) 301-0297-4263-61

| 문의

▷ Email gw_indiefilm@naver.com

▷ Web https://gwindiefilm.modoo.at/

▷ Instagram gw_indiefilm

▷ Address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19번길 49-6, 1층



QR코드를 접속하시거나 주소창에
bit.ly/강원독립영화협회 를 입력해주세요

회원 가입 신청

클로즈업

Close Up

올해 클로즈업 섹션에선 김성수 감독을 초청했다. 최근 <서울의 봄>(2023)으로 1,312만 명의 관객과 만난 김성수 감독은 1993년 단편 <비명도시>로 주목받은 후 첫 장편 <런어웨이>(1995)를 내놓았고, 이후 <비트><태양은 없다>(1999)<무사>(2001)<영어완전정복>(2003)<감기>(2013)<아수라> 등 총 8편의 장편영화를 연출한 감독이다. 1990년대에 만든 세 편의 영화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장르 영화로 특히 <비트>는 감각적인 화면과 액션 신으로 지금도 회자되는 청춘 영화이다. 2000년 이후 김성수 감독은 중국 로케이션을 통해 한국영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무사>,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대한 시도였던 <영어완전정복> 그리고 바이러스를 소재로 한 재난영화 <감기> 등을 선보였다. 그리고 내놓은 <아수라>는 음모와 폭력이 난무하는 수컷들의 싸움을 보여준 작품으로, 김성수 감독에 대한 팬덤을 형성했고 최근작 <서울의 봄>에선 12.12 군사반란의 현장을 담아내며 많은 관객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비트

Beat

Korea | 1997 | 113min | Fiction | Color | 19

“나에겐 꿈이 없었다. 열아홉 살이 되었지만 내겐 달리 할 일이 없었다.” 민의 내레이션이 이끄는 김성수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 <비트>는 27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청춘영화이자 액션영화이자 도시의 쓸쓸한 비가이다. IMF와 세기말이 뒤엉켜 있던 1990년대 말 한국, <비트>의 ‘액션’ 아니 ‘싸움’은 그 시대를 벗어나려는 청춘의 몸짓이었으며, 민이 양 팔을 벌리고 오토바이를 타는 ‘질주의 이미지’는 아이콘이 되었다. 최근 재개봉한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상영된다.



김성수

KIM Sung Soo

1993년 첫 단편 <비명도시>를 만들었다. 1995년 <런어웨이>로 데뷔. 이후 <비트><태양은 없다><무사><아수라> 등을 연출했다. <서울의 봄>으로 백상예술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306 3관 6/22 토 13:30 Cine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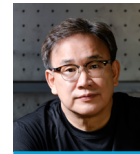


아수라

Asura : The City of Madness

Korea | 2016 | 132min | Fiction | Color | 19

김성수 감독이 자신의 1990년대 영화로 돌아가, 예전의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무게를 더한다. 제목이 암시하듯 ‘아수라장’인 현실을 범죄 누아르 장르에 담은 <아수라>는, 완벽하게 조율된 장르적 미장센에 온통 악인뿐인 캐릭터들을 세운다. 그들은 사주하고 배신하며, 폭력을 주고받고, 결국은 파국을 맞이한다. 동정이나 연민 없는, 비장미나 장렬함조차 사라진 생지옥 같은 공간. 관객에게 쉽지 않은, 하지만 잊을 수 없는 관람의 경험이 될 것이다.



김성수

KIM Sung Soo

1993년 첫 단편 <비명도시>를 만들었다. 1995년 <런어웨이>로 데뷔. 이후 <비트><태양은 없다><무사><아수라> 등을 연출했다. <서울의 봄>으로 백상예술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308 2관 6/22 토 16:00 Cine Talk



감독 김성수

폭력에 대한 성찰

김성수 감독의 영화에서 '폭력'은 중요한 테마이다. 그를 세상에 알린 단편 <비명도시>(1993)와 그 확장인 장편 데뷔작 <런어웨이>(1995)는 주인공이 우연히 살인을 목격하면서 시작된다. 이때부터 시작된 폭력과 죽음과 도시의 범죄의 이야기는 그의 필모그래피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곤경에 빠진 인물들이 쫓기고 막다른 길에 다다르며 결국엔 폭력의 클라이맥스를 맞이하는 과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었다. 본격적 시작은 <비트>(1997)였다. 이 영화에서 폭력은 욕망에 휘둘리기 쉬운 젊음의 해방구였다. 핸드헬드 카메라로 스타일리시하게 담아낸 액션 스펙터클은 김성수 감독의 시그니처가 되었고, 정우성은 당대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다. 이어지는 <태양은 없다>(1999)는 전작보다 좀 더 성숙해진 영화로, 폭력의 판타지나 나르시시즘 없이 도시에 서식하는 청춘의 누추한 현실과 그래도 품어 보는 작은 희망을 이야기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김성수 감독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한다. 거대 프로젝트였던 <무사>(2001)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로, 그의 영화 중 가장 큰 곤경에 처한 인간 군상을 보여준다. 이 영화로 액션의 정점을 찍은 후 의외의 선택인 로맨틱 코미디 <영어완전정복>(2003)을 거쳐, 재난 영화 <감기>(2013)에 도착한다. <감기>와 <아수라>(2016) 그리고 <서울의 봄>까지 김성수 감독의 화두는 개인적 폭력이 아니라 '폭력의 시스템'이었다.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에게 총을 겨누는 <감기>에서 공적 폭력의 문제를 물었다면, <아수라>는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의 역학 관계를 드러내는 '피의 폐허'를 보여준다. 그리고 <서울의 봄>에서 드디어, 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근원을 찾아간다. 스타일에 대한 고민에서 본질에 대한 성찰로. 김성수 감독의 '폭력 미학'은 그렇게 진화했다.

리플레이

Replay

이미 개봉된 바 있지만, 다시 소환할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모은 '리플레이' 섹션에선 7편의 장편과, '월레스와 그로밋 더 클래식 컬렉션'으로 묶인 세 편의 단편을 상영한다. <사랑은 낙엽을 타고>는 영화광들의 오랜 사랑을 받고 있는 핀란드의 거장 아키 카우리스마키의 작품으로, 한적하고 독특한 로맨스를 만날 수 있다. <나의 올드오크>는 켄 로치의 마지막 영화로, 소외된 자에 대한 연민과, 민중의 연대에 대한 그의 여전한 신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이랜드>는 파키스탄 영화로, 보수적 사회의 금기를 넘어선 섹슈얼리티를 보여준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최근 가장 뜨거운 평단의 지지를 받은 작품이다.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과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홀코코스트의 섬뜩한 공포를 보여준다. 30주년을 맞이한 <쇼생크 탈출>도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관객과 만난다. 야외 상영에선 세 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웁카>는 한국 극장가에서 353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월드 박스오피스에서 6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작품. 티모시 샬라메의 매력을 야외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다. <브레드 이발소: 셸럽 인 베이커리타운>은 아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한국의 애니메이션 프랜차이즈. 그 첫 극장판이 상영된다. 그리고 전설의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인 아드만 스튜디오의 단편들인 <화려한 외출> <전자 바지> <양털 도둑>이 '월레스와 그로밋 더 클래식 컬렉션'으로 상영된다.



켄 로치
Ken LOACH

영국 사회참여적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거장.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칸영화제에서 2차례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나의 올드 오크>로 은퇴를 선언했다.

나의 올드 오크

The Old Oak

UK, France, Belgium | 2023 | 113min | Fiction | Color | 15

켄 로치 감독이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공언한 작품.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 <미안해요, 리키>(2019) 에 이은, 영국 북동부 지역을 배경으로 한 3부작의 마지막이다. 1980년대 대처리즘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그곳, 지금은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다. 사진을 찍는 소녀 아라와 '올드 오크'라는 펍을 운영하는 TJ가 만나 마을을 조금씩 바꿔 나간다. 영화가 엔딩에 내세우는 '용기' '연대' '저항'은 56년에 달하는 그의 필모그래피를 요약하는 단어일듯.

401 1관 6/23일 11:00



아키 카우리스마키
Aki KAURISMÄKI

핀란드의 거장. <과거가 없는 남자>로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 <희망의 건너편>으로 베를린영화제 감독상, <사랑은 낙엽을 타고>로 칸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사랑은 낙엽을 타고

Fallen Leaves

Finland, Germany | 2023 | 81min | Fiction | Color | 12

헬싱키에 사는 외로운 남녀, 안사와 홀라파는 우연히 만나 연인이 되지만, 원치 않는 이별을 한다.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랑은 낙엽을 타고>는 두 노동자의, 그 어떤 장식도 없는 로맨스다. '우울한 시대의 낭만주의'라고 부를 만하다. 그러면서도 아키 카우리스마키 특유의 촌철살인 대사와 간결한 유머가 결합된다. 흥미로운 건 이 영화가 일종의 뮤지컬 스타일을 품고 있다는 것. 게다가 카우리스마키의 시네필 취향도 반영되어 있다. 로맨틱 코미디라고 보기엔 조금 건조해 보이지만, 그 속살엔 촉촉한 감성이 깃들여 있다.

203 3관 6/21일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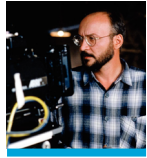


쇼생크 탈출

The Shawshank Redemption

USA | 1995 | 142min | Fiction | Color | 15

1990년대 할리우드가 만든 영화들 중 진정한 스테디 셀러로 부를 만한 작품. 3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언제나 꺼내 봐도, 이미 여러 번 본 장면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동을 주는 몇 안 되는 영화들 중 하나다. 스티븐 킹의 탄탄한 스토리를 토대로, 영화는 단 한 순간도 품격을 잃지 않으며 잘 조율되어 있다.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은, 이 영화를 본 후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는 내용의 수많은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단순한 영화를 넘어, 용기와 희망을 복돋우는 힐링 무비.



프랭크 다라본트
Frank DARABONT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다가 <쇼생크 탈출>로 감독 데뷔하며 아카데미 각색상 후보에 올랐고, 이후 <그린마일>로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 <미스트>를 연출했다.

407 1관 6/23 일 1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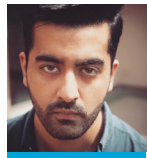


조이랜드

JOYLAND

Pakistan | 2022 | 127min | Fiction | Color | 15

소박하게 살아가는 몸타즈와 하이더르 부부. 하이더르는 트랜스젠더 가수 비바의 백댄서가 되고 그에게 끌린다. 부부 사이에도 묘한 변화가 생긴다.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그랑프리나 쿼터 상을 수상한 작품인 <조이랜드>는 파키스탄을 배경으로 한 가족 시네마이자 주인공의 성 정체성에 대한 드라마다. 억압적 사회에서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강요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사임 사디크 감독이 캐릭터에 지닌 애정은 온기를 만들어낸다. 약간은 우울하면서도 활기를 잃지 않는, 오묘한 톤을 지닌 영화다.



사임 사디크
Saim SADIQ

파키스탄의 영화감독. 단편 <달랑>은 베니스영화제 오리존티 단편영화상을 수상. 첫 장편 <조이랜드>는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406 3관 6/23 일 14:00

리플레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

The Zone of Interest

UK | 2023 | 105min | Fiction | Color | 12

2023년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국제장편영화상을 수상한 작품.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악의 평범성"에 대한 완벽한 영화적 구현이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영화지만 수용소가 아닌, 수용소 담장 밖에 있는 루돌프 회스 장교 부부의 집이 중심 공간이다. 영화는 꽃으로 만발한 아름다운 집에서 벌어지는 그림 같은 일상으로 섬뜩한 공포를 선사한다. 담 하나를 가운데 놓고 지옥과 천국이 공존하는 듯한, 거대한 아이러니의 영화. 최근 가장 핫한 제작사 A24가 만든 작품이다.



조나단 글레이저
Jonathan GLAZER

영화 예고편, 뮤직비디오, TV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했다. 첫 장편 <섹시 비스트> 이후 <탄생> <언더더스칸>을 연출했다.

303 3관 6/22 토 11:00

Replay

2024 춘천영화제는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춘천시네파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올해 영화제의 로컬 영화제로서 그 정체성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춘천시네파크’는 그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는 춘천 지역의 영화 제작 지원 및 로케이션 사업으로 성과를 거두었고, ‘씨네파크’를 통해 많은 지역 관객들과 만났다. 올해는 영화제와 결합되어 ‘춘천시네파크’ 프로그램을 선사하게 되었는데, 공치천 청소년푸름심터에서 펼쳐지는 야외상영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먼저 금요일엔 <월레스와 그로밋 더 클래식 컬렉션>이 상영된다. 아드만 스튜디오의 초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단편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토요일 오후엔 <윙카>를 만날 수 있다. 티모시 살라메의 매력과 뮤지컬 장르의 재미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일요일 폐막식이 끝난 후엔 가족 관객을 위해 <브레드 이발소: 셀럽 인 베이커리타운>이 상영된다. 야외 공간에서, 낮에는 공연을 밤에는 영화를 즐기는 영화 축제를 만끽하시길 바란다.



월레스와 그로밋 더 클래식 컬렉션

Wallace & Gromit The Classic Collection

UK | 2024 | 85min | Animation | Color | ©

아드만 스튜디오의 고전 걸작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을 모은 ‘월레스와 그로밋 더 클래식 컬렉션’은 1997년에 나온 세 편의 단편을 모은 패키지다. <화려한 외출>은 아드만의 첫 애니메이션. 월레스가 치즈를 구하러 달나라에 간다. <전자 바지>에서 월레스는 발명품 전자 바지 때문에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몰리자 그로밋이 구하러 나선다. 팽귄이 빌런으로 등장한다. <양털 도둑>은 양들이 실종되는 사건을 월레스와 그로밋이 해결한다. 2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흥미진진한 애니메이션.

야외상영 공치천 6/21 금 19:00



닉파크
Nick PARK

1985년에 아드만 스튜디오에 입사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거장이 되었다. 단편작업으로 주목받은 후 <치킨 런> <월레스와 그로밋: 거대 토끼의 저주> <열리맨> 등을 연출했다.



윙카

Wonka

USA | 2023 | 116min | Fiction | Color | ©

로알드 달의 동화는 여러 편 영화화되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2005년에 조니 뎀 주연으로 영화화되었는데, 티모시 살라메가 윙카로 등장하는 <윙카>는 그 프리퀄이라 할 수 있다. 마법사이며 초콜릿 메이커인 윙카의 꿈은 ‘달콤 백화점’에 자신의 가게를 여는 것. 하지만 빈털터리인 그에게 힘든 일이며, 게다가 초콜릿 도둑인 옴파 롬파마저 등장했다. 뒤편이해도 티모시 살라메가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인 작품.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뮤지컬이다.



폴킹
Paul KING

BBC 코미디 시리즈 <마이티 부시>를 연출해 영국 아카데미상 신인감독상 후보에 올랐고, 영화 <패딩턴>과 <패딩턴2>를 연출했다.

야외상영 공치천 6/22 토 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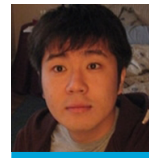
브레드 이발소: 셀럽 인 베이커리타운

Bread Barbershop: Celeb in Bakery Town

Korea | 2024 | 73min | Animation | Color | ©

2019년에 시작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브레드 이발소>의 첫 극장판 <브레드 이발소>는 한국의 몬스터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프랜차이즈로, 극장판 역시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정지환 감독이 연출했다. 천재 이발사 브레드와 사고뭉치 조수 윙크가 일하는 이발소에 베이커리타운의 셀럽들이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마을 최고의 아이돌 마카롱, 걸 그룹을 꿈꾸는 캔티즈 그리고 여러 래퍼 군단까지,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해 퍼포먼스를 펼치는 아동용 애니메이션. 야외 상영으로 관객 과만나다.

야외상영 공치천 6/23 일 19:00



정지환
JUNG Ji Hwan

Academy of Art University를 졸업했다. <꼬마버스타요>의 프로듀서였으며, 현재 (주)브레드 이발소 대표이다. 대한민국콘텐츠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0~9

8월의 크리스마스 32

ㄱ

거미 42

관값 17

그여름날의 거짓말 26

ㄴ

나무의 집 18

나의 울드오크 51

ㄷ

다리밑도영 31

담요를 입은 사람 34

대답 44

도축 22

되돌리기 42

다-데이, 프라이데이 21

딸에 대하여 26

ㄹ

럭키, 아파트 27

로봇 드림 36

ㅁ

미디어 19

명태 44

명희 18

무너지지 않는다 40

ㅂ

브레드이발소·셀럽인베이커리타운 55

비트 47

빛과몸 15,41

ㅅ

사랑은 낙엽을 타고 51

샬리 20

사우트 23

셋 둘 하나, 김치 43

셋둘하나 22

소년유랑 41

쇼생크 탈출 52

수카바티: 크락축구단 35

스위밍 38

ㅇ

아무 잘못 없는 20

아수라 47

안 할 이유 없는 임신 39

안녕의 세계 21

월레스와 그로밋더 클래식 컬렉션 54

왕카 55

유령이 떠난 자리 37

유아용 욕조 19

육 년과 여섯 번 23

이부자리 43

일출전야 38

색인

ㅈ

절해고도 27

조이랜드 52

존 오브 인터레스트 53

ㅊ

청년정치백서-소미더저스티스 35

ㅋ

토끼 탈을 쓴 여자 24

ㅎ

한채 30

함진아비 17

항해의 끝 37

해야 할 일 30

헨젤·두 개의 교복치마 31

발행인 박기복
프로그램 노트 김형석
편집 함유선·박선정
교열 함유선·박선정
디자인 박선정

발행처 사단법인 춘천영화제
2434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32, 304호
TEL 033-251-3370
FAX 033-251-3380
www.ccff.or.kr

조직구성

이사장

박기복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교수

조직위원장

이대범 전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사

김아영 화가

양종천 양종천 세무회계사사무소 대표

이순철 전 춘천MBC 방송제작국장

정연구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정지욱 영화평론가

주진형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장

지병준 한림성심대학교 디지털미디어콘텐츠과 교수

감사

신상민 법무법인 대한중앙

Volunteer 가나다순

봄봄이

김가령	이가민	조승주
김규리	이선미	조연희
김민주	이선정	진미량
김수인	이소영	최교민
김우신	이영은	최은지
문소현	이유나	한보원
박소연	이지인	한혜원
방이정	이현지	홍유진
사만타 버튼	장석진	
선가빈	정지원	
양수희	정지은	

스태프

운영위원장

프로그래머 김형석

프로그램팀

팀장·프로그래머 함유선

팀원 김소람 김예정

기획운영팀

팀장 이해림

팀원 김다은 김연찬 김재환 박영준

원석화 이기범 이승민 최도준

홍보마케팅팀

팀장 박선정

팀원 강진석 길도현 박서형 이선경

기술

상영 진미디어 박찬진 최수훈 문희상

렌탈 강원그린렌탈 홍성준

발전 덕진발전기 정덕진

상영 진미디어 박찬진 최수훈 문희상 배선희 오예리

약기 극동약기렌트 김휘태 김용태

영상 미디어온 김진욱 임건 엄예안

음향 스탠딩플러스 김화수 이성은 조현아 장승호 이찬희

조명 아르스컴퍼니 한용의 박두환

공식영상·기록

김한솔 최재원 차재환

Tumbbug sponsor

가나다순

강상우	네모컬처스	안재현	전네빈
계은비	류지수	오석기	전초희
고성은	류지혜	오성현	전통고닉
고정	문미정	오예진	정석일
공나영	박대한	오한아	정연서
곽의환	박동아	옥소미	정호균
권미선	박상석	웅성우	조윤영
권영도	박상오	유형민	조희수
권혜정	박소현	윤민주	채승표
김기홍	박유진	윤성준	최아림
김버리	박은진	윤정	최하늬
김수영	박정욱	윤정	최희진
김수철	밤에피는오징어	윤종인	케이
김아영	방혜진	이경순	평창함팀장
김완	배은경	이규화	함승현
김용남	버들양	이수민	호피아빠
김유향	보란양이	이수영	홍지혜
김윤설	산책	이신비	황선욱
김은재	서진이와 경조	이신우	황주명
김정우	소양하다	이정오	후암동과 망원동
김주철	수호랑반다비	이지윤	Comp.Chem_최항석
김준영	습기없는 오유리	이현정	Taylor Kang
김현수	신지이	인승민	
김화수	안녕하는사이	임승이	
김희윤	안영윤	장진혁	

CCFF supporter

가나다순

길영우	박동일	정연구
김남덕	서숙희	정연숙
김미아	신도선	정진미
김상진	양종천	조광희
김순희	여은미	조순주
김제원	우란영	주진형
김종수	원선희	지병준
김필수	윤택구	차희주
김혜혜	이선영	한영호
목진수	이순철	홍대춘
민병후	이승준	황성진성형외과
민천홍	장경순	

함께 해주신 분들

Thanks to

가나다순

(주)캡스텍 최상열 정호석	오공복이 남춘천점
강대신문 신수민	앤드크레딧 박혜경
강원대학교	영화배급협동조합 씨네소파 한수연
강원도민일보 김여진 최우은	영화사진전 김진웅 정태원
강원독립영화협회 박주환 윤수민	왓차 양치우왕시현
강원문화재단 신현상	인디스토리 박예지
강원애니고등학교 한명진 김선영 백경혜 윤보미	자두자두 원새록
강원영상위원회 이명우	자라섬재즈페스티벌
강원일보 오석기 김오미	찬란 고도연한규필
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이다연	춘천 KBS 손영주
강원특별자치도인권센터 송제성 전다흰 강상석 이경원	춘천문화재단 이인규
강원특별자치도청 대변인실 조은노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이원민 안종후 이윤지 허진수
다이아플러스코리아 최영익	춘천시청문화예술과 표한수 조미연
더팩스나인스호텔 장형민 서재환 박성하	춘천일기 최정혜 강승용
돈카미	춘천시속가능발전협의회 권오덕 김상진 송현섭
대원당 윤장훈	포스트핀 권소연
마노엔터테인먼트 이지현	플럼에이앤씨
맘스터치 메가박스점	필름다빈 문입성
명필름문화재단 황순상	하이라이트 조운서 임성윤 김규민 권나경 조아현
무주산골영화제 조지훈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씨앗 최복희
미디어하루 박주환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김희영 박선하 윤소민
미스사이공 춘천온의점	호우주의보 백선우
미스터빠삭 춘천온의점	ACOMMZ 김미희
베리 김주아	CJENM 조영주
브레드이발소 김예슬	Funnycon 김태원
사랑담아 강태경 이정은	G1 김지은
성결대학교 경조사영화 오하영	ms투데이 한승미
센트럴파크 홍성윤	POP Ent. 손희준
소락재 김현주	YES24 남기산
솔리드 소순자	YJA인베스트먼트 유은상
송실대학교 영화예술전공 배급팀SSUT 이소희	김사희
신도림 국수회관	신지희
샐러디 춘천온의점	정란
슈아픽처스 박상백	
싸이더스 김도원	김은정
아토 제정주	그리고 고 이성규 감독

도움 주신 분들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Chuncheon City Film & Drama Support Center

촬영하기
좋은도시

영화도시

춘천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재 |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http://ccfc.or.kr/kor/>

춘천시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Hybrid Arts Business center

Hybrid
Arts
Business Center

합
합

합톤2024
HABTHON

뉴미디어, AI 등 신기술 활용
융복합 공연콘텐츠
기획 & 비즈니스 과정

2024. 6. 19 ~ 7. 14

· 6.19~7.8 합톤랩

· 7.12~7.14 해커톤

입주·창업·인큐베이팅
아트&테크 융합예술 실험
공간대관

www.thehab.co.kr
033-259-5892~5

Hybrid
Arts
Business
center

춘천시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춘천시속가능발전협의회 ×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센터 × 신사우동통장경다리협의회 × 춘천영화제 × 춘천시립도서관

2024 차근 차근 상영전

6/29^토
해오름공원

7/27^토~28^일
춘천시립도서관

공동주최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센터
신사우동통장경다리협의회
사단법인 춘천영화제
춘천시립도서관

주최·주관

춘천시속가능발전협의회

후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무료상영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센터는 도민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강원을 만들어 갑니다.

인권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1. 인권침해·차별 구제 활동

-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차별행위 상담 및 조사
- 인권침해·차별 관련 제도 개선



2. 인권교육 및 홍보 활동

- 인권교육을 통한 도민과의 인권소통
- 지속가능한 인권교육 체계 마련
- 인권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도민 참여형 행사 추진



3. 인권네트워크 구축 활동

- 인권기관·단체 등과 연대
- 지역 인권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역사회 인권 증진 활동

우편 및 방문신청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5, 5층 인권센터

전화신청

033-249-2327

이메일신청

gwhrc@korea.kr

홈페이지신청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전자민원-인권강원-

제보·신청란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센터
홈페이지





강원 촬영 유치 지원



강원영상인 창작기반 마련



도민 영상문화 향유 확대



우리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강원 콘텐츠 인력양성



KEEP CHUNCHEON ROMANTIC

향기로 떠나는 로맨틱한 춘천여행

춘천일기는 춘천과 강원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로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일기스테이에서 로컬을 만나고 경험하는 특별한 춘천여행을 시작해보세요.

춘천영화제를 찾아주신 관객분들을 위해
춘천일기스테이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

예약시 요청사항에 [춘천영화제]라고 남겨주시면
웰컴굿즈로 여행용 춘천때브릭퍼품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2024년 7월 31일까지 (숙박일 기준)



[예약하기]



HAIR & BEAUTY

Salon De MIMO

BUSAN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 7 2층
051.247.3559



소락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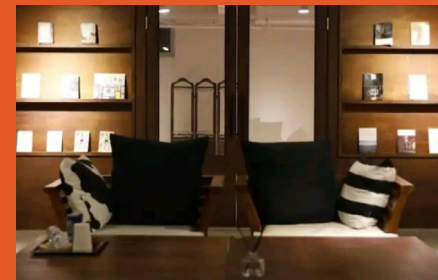
2013
1989

춘천 문화공간 & 북스테이
소락재



강원 춘천시 공지로333번길 8
(호자동) 2,3층

sorakjae_official



캡스클린케어 zone

캡스클린케어는 해충과 각종 유해 세균을 소독하는 전문 방제 · 살균 브랜드입니다.

✓ 살균 · 방제 보안시스템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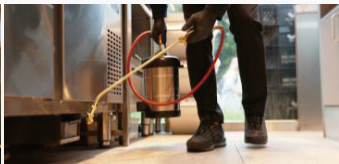
☎ 1800-8900

캡스클린케어
zone
1800-8900

캡스텍의 살균·방제 관리 중
캡스텍은 라이프케어 플랫폼 SK일더스의 가족입니다.



해충방제 서비스



살균 서비스



포충기 서비스

캡스클린케어

THE JACKSON9s HOTEL

호반의 도시 춘천,
그 안에 낭만과 힐링을 담은 곳



· 서울양양 고속도로 이용시

춘천C → 공지천 교차로에서 '도청, 시청' 방향으로 우회전 → 호텔 진입로

· 중앙고속도로 이용시

춘천C → 공지천 교차로에서 '도청, 시청' 방향으로 우회전 → 호텔 진입로

· 시외버스 이용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2km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택시이용이 편리합니다.

· 지하철 & ITX청춘열차 이용시

춘천역, 남춘천역에서 1.5km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택시이용이 편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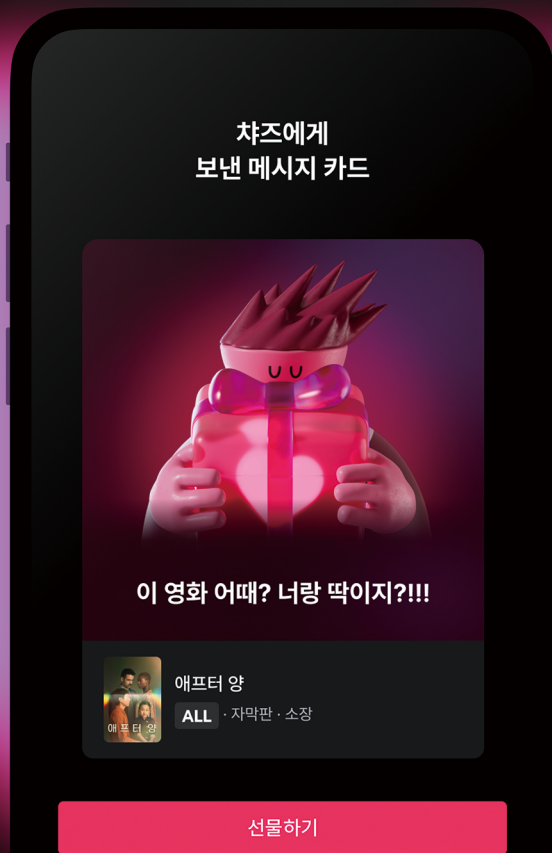
Tel. 033) 253-0000 | Fax. 033) 256-0022

Add.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93(근화동)

www.jacksonhotel.co.kr

WATCHA

기억에 남을 특별한 선물
영화를 선물하세요



발견의 기쁨, 왓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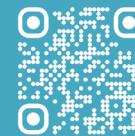


21ST. 2024.10.18-20 JARASUM JAZZ FESTIVAL



제21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일시 | 2024.10.18(금) ~ 10.20(일)
장소 |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및 가평읍내 일대
주최 | 가평군, 문화현상 주관 | 문화현상



www.jarasumjazz.com

첫 가입시 첫 달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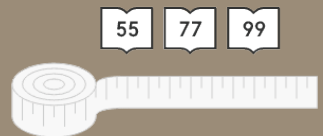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나 무제한 독서 라이프

무한한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크레마클럽으로 오세요!



베스트셀러부터 신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7만 권이 넘는 eBook을 무제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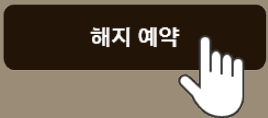
크레마클럽은
대한민국 1등 인터넷서점 예스24의
무제한 전자책 구독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요금제
매달 소액으로 결제하는 정기구독부터
한 번에 결제하고 꼭 사용하는
이용권까지! 나에게 딱 맞는 요금제로
시작하세요.



다양한 디바이스 지원
하나의 계정으로 최대 5대의 기기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크레마 이용 시 최대 7대)



언제든지 간편 해지 가능
결제 전에 해지 예약을 하시면
다음 달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우선 시작하세요!

crema Club

MEGABOX 남춘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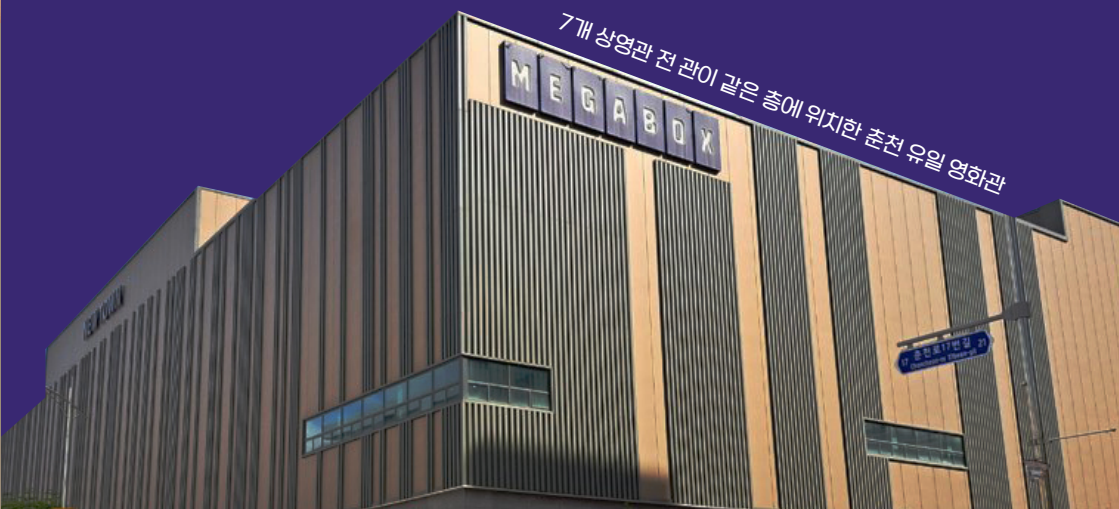
다양한 영화와 스낵, 게임파크에서 즐기는
오락실과 인생사진 촬영까지



높은 층고가 주는 탁 트인공간과
여유로운 양팔걸이 좌석

대관행사(개인/단체)문의는
메가박스 남춘천점
매표소 직원을 찾아주세요

문의 **033-241-1000**



7개 상영관 전관이 같은 층에 위치한 준전 유일 영화관